

韓·日經濟의 産業成長과 生産構造變化의 要因分析

李 鎮 勉 (本院 主任研究員)

藤 川 清 史 (日本甲南大學 經濟學部 教授)

* 本稿는 1995년 韓國科學財團의 研究費로 필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李鎮勉 主任研究員이 總合研究開發機構(NIRA, 日本)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우선 拙稿가 출간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朴俊卿·韓震熙 박사님, 그리고 草稿를 읽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産業研究院의 閔庚輝 박사님과 本院의 禹天植 박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논문이 작성될 때까지 많은 토론을 통해 도움을 주신 洪性德·李在亨 專門研究員, 그리고 NIRA 및 本院의 세미나에서 건설적인 논평을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 要 約 ◇

一國의 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産業構造의 變化에 의한 生産과 所得의 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偏差(DPG)」 방법을 일본의 경우는 1915~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산업연관 자료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양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기간중 양국 모두에서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서비스산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는 1990년까지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보다는 國內需要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특히 수출은 분석기간중 지속적으로 正의 效果만을 보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國內需要의 規模와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I. 序 論

歐美先進國들에 비해 뒤늦게 경제발전을 시작한 일본은 第2次大戰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經濟大國이 되었고, 1945년 해방후 정치적인 불안과 1950년 6·25動亂을 겪은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經濟發展으로 新興工業經濟地域(NIES)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1996년에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의 가입이 결정되는 등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는 자원이 희소하여 풍부한 勞動力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았으며, 전쟁으로 인한 荒廢와 선진국에 비해 工業技術이 절대적으로 뒤진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유사점도 있지만, 經濟發展의 歷史, 經濟·社會的인 諸般與件 및 經濟開發戰略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왔다.

一國의 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産業構造의 變化에 의한 生産과 所得의 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산업성장과 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서 경제발전의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의 경제정책에 이용하는 것은 경제발전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경제발전이론에서 경제발전의 패턴을 類型化하고, 그러한 발전 패턴을 가져오는 要因을 찾는 연구는 Chenery(1960), Chenery, Shishido, and Watanabe(1962) 등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이 이용한 방법은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偏差(Deviation from

Proportional Growth)』(이하 DPG로 부름)라고 불리는 분석방법으로 산업생산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主導産業(leading industry)을 特定化하고, 이 주도산업의 발전을 초래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패턴은 需要側面에서 볼 때 構成要因의 寄與度에 따라 輸出主導型, 內需主導型, 혹은 投資主導型, 消費主導型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주도산업의 성장요인에 주목해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DPG분석방법을 이용하여 兩國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패턴과 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최종수요구조의 편차, 수입 의존도의 변화, 그리고 투입계수의 변화(기술변화) 등으로 분해하려는 것이다.

DPG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일본이나 한국경제를 분석한 연구로는 Chenery, Shishido, and Watanabe(1962), 渡部經彦·駿河輝和(1977), 金光錫(1980), 青木浩治·稻田義久(1980), 韓福相(1989), 陣光輝·藤川清史(1989), 金光錫·洪性德(1990), 閔庚輝(1993)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연구들의 결과를 평가하여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요인을 분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最終需要部門을 대부분 國內需要와 輸出만으로 분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요인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며, 둘째 產業分類 및 分析期間이 달라 양국간의 상호비교에 어려움이 따르고, 셋째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겪었던 1980년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산업성장과 생산구조변화의 요인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우선 최종수요부문에서 소비요인과 투자요인이 분리되도록 기존의 DPG분석방법을 다소 수정하고, 산업분류는 양국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재분류하며, 분석기간도 일본은 1915~

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기간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本稿는 II장에서 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를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개관하고, III장에서 DPG분석방법을 소개하며, IV장에서 양국경제의 DPG분석결과를 비교·검토하고, V장에서 분석결과와 요약과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兩國의 經濟成長과 構造變化의 概觀

1. 日本經濟

19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경제는 經常國內總生産(GDP)基準의 경제규모가 약 4조7천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위치하며, 1인당GNP도 약 3만7천달러로 세계상위권에 속하는 名實相符한 經濟大國이다.

이러한 日本經濟의 成長과 構造變化를 살펴보면 第2次大戰後 1946~55년까지는 소위 經濟復興期로 패전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거의 마무리되고, 195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고도성장기에 접어들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의 평균성장률은 9%를 넘고 있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더욱 가속되어 11% 이상의 고속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오일쇼크 등으로 성장률은 4%대로 둔화되었다. 필사적인 감량경영의 노력과 경제의 체질개선으로 세계적 경제불황을 넘긴 일본경제는 1980년대에 들어 4%대의 안정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1~2%대의 低成長을 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은 固定

〈표 1〉 일본의 經濟成長과 構造變化

(단위 : %)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經濟成長率 ¹⁾ (GDP)	8.9	9.3	11.4	4.6	4.4	3.4	4.6	1.4	
1인당GNP (달러)	262	477	930	1963	4471	9143	11322	24436	37925
需要構造 ²⁾									
소비지출	75.8	66.7	66.7	59.7	67.2	68.7	68.5	67.0	69.2
고정자본형성	19.4	29.0	29.8	35.5	32.5	31.6	27.5	31.7	28.7
수출	11.0	10.7	10.5	10.8	12.8	13.7	14.5	10.7	9.3
수입	10.5	10.3	9.1	9.5	12.8	14.6	11.1	10.0	7.2
産業構造 ²⁾									
농림수산업	19.2	12.8	9.5	5.9	5.3	3.6	3.1	2.4	2.0
광공업 (제조업)	29.4 (27.5)	35.3 (33.8)	33.8 (32.8)	35.6 (34.8)	29.6 (29.1)	28.7 (28.2)	28.7 (28.4)	27.8 (27.5)	23.7 (23.5)
건설·공공 ³⁾	6.7	8.0	9.0	9.6	11.2	11.6	10.7	12.0	13.0
서비스업	44.7	43.9	47.7	48.9	53.9	56.1	57.5	57.8	61.3
製造業 構造 ²⁾									
경공업	58.2	42.7	40.8	35.5	38.5	36.4	35.4	34.7	36.0
중화학공업	41.8	57.3	59.2	64.5	61.5	63.6	64.6	65.3	64.0

주 : 1) 實質GDP의 期間平均增加率임.

2) 産業別 經常國內總生産을 기준으로 산출.

3) 建設業과 電氣水道가스업을 포함.

자료 :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각호.

資本形成, 즉 投資의 擴大라고 볼 수 있다. 1955년 국내총지출의 19.4%를 차지하던 투자의 비중은 1965년에 29.8%로 확대되며 1970년에는 35.5%까지 높아졌다. 1970년대의 불황기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설비투자 대신에 수출증대와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까지는 投資支出과 消費支出로 구성되는 內需가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변화는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수반했다. 국

내총생산에 대한 산업별 비중을 보면 1955년에 거의 20%에 달하던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1970년에는 5.9%로 감소하였으며 1994년에는 2.0%까지 낮아졌다. 반면, 제3차산업의 비중은 1955년의 51.4%에서 1970년에 58.5%, 1994년에 74.3%로 크게 확대되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955~70년 기간중 27.5%에서 34.8%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제조업 가운데서도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매우 두드러져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부터는 제조업전체의 비중이 다소 축소되고 있지만 제조업내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제조업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 세분류의 산업들간에는 시기별로 그 성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세분류산업의 성장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2. 韓國經濟

한국경제는 짧은 자립경제의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로 불리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도 100달러가 채 못되었던 1인당GNP가 1994년에 8천달러를 넘었으며 1995년에는 1만달러를 넘어섰다. 경제규모도 1994년에 3,008억달러로 세계 11~12위권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후 국토의 분단과 정치적 불안은 경제를 혼란케 했으며, 더욱이 1950년의 6·25動亂은 경제를 거의 마비상태로 빠져들게 했다. 이후 1950년대 초부터 1960년까지의 7~8년 동안은 經濟復舊期로 볼 수 있다. <표 2>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1955~60년 기간동안의 경제성장률은 3.4%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

〈표 2〉 한국의 經濟成長과 構造變化

(단위 : %)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經濟成長率 ¹⁾ (GDP)	3.4	6.5	10.4	8.2	7.2	8.1	10.1	7.2	
1인당GNP (달러)	65	79	105	253	594	1597	2242	5883	8508
需要構造 ²⁾									
소비지출	85.9	99.9	93.5	84.1	81.6	76.0	68.6	63.8	64.3
고정자본형성	10.4	10.9	14.9	25.1	26.7	32.1	28.6	37.1	35.7
수 출	1.7	3.4	8.6	14.1	27.8	33.9	34.1	29.8	30.1
수 입	10.1	12.8	16.0	23.8	36.2	41.3	32.8	30.3	30.8
産業構造 ²⁾									
농림수산업	44.5	36.8	38.0	26.6	24.9	14.7	12.5	8.7	7.0
광 공 업 (제조업)	12.6 (11.6)	15.9 (13.8)	20.0 (18.0)	22.5 (21.0)	27.5 (25.9)	29.7 (28.2)	30.5 (29.3)	29.7 (29.2)	27.2 (26.8)
건설·공공 ³⁾	3.6	4.1	4.7	6.6	5.9	10.1	10.6	13.7	15.9
서비스업	39.3	43.2	37.2	44.2	41.7	45.5	46.5	47.9	49.9
製造業 構造 ²⁾									
경 공 업	79.9	76.6	68.6	60.8	52.1	46.4	41.5	34.1	27.1
중화학공업	20.1	23.4	31.4	39.2	47.9	53.6	58.5	65.9	72.9

주 : 1) 實質GDP의 期間平均增加率임.
 2) 産業別 經常國內總生産을 기준으로 산출.
 3) 建設業과 電氣水道가스업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國民計定』, 각호.

을 기록하였지만 이것은 한국경제의 독자적인 성장잠재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외원조실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

따라서 한국경제가 진정한 자립경제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66년)」이 실시된 1960년대 초라고 할

1) 南相祐(1995), p. 10. 참고로 1953~60년 동안 한국에 도입된 해외원조는 약 18억6,500만달러로 1960년의 經常國內總生産이 20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이다.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초의 경제성장률은 6.5%로 이전기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상승하였으며,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71년)」 기간인 1960년대 후반에는 10%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1970년대에도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7~8%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성장률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대외경제여건의 호재인 소위 「3低現象(低油價, 低國際金利, 低달러化)」에 힘입어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비지출의 비중은 1960년의 99.9%에서 1994년에는 64.3%로 크게 감소한 반면, 투자와 수출의 비중은 1980년대 전반까지 계속 확대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까지도 10%대에 머물러 있었던 투자비중은 1980년에 32.1%로 높아져 20년 동안 3배 정도 확대되었다. 수출비중의 확대는 투자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1960년에 3.4%에 불과하던 수출비중은 1975년에 27.8%로 확대되었고, 1985년에는 34.1%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급속한 수출확대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소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오는 동안 산업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1955년의 44.5%에서 1994년에 7.0%로 낮아진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제3차산업은 42.9%에서 65.8%로 매우 높아졌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도 1955년의 11.6%에서 1990년에는 29.2%로 확대되었으며 1994년에는 다소 축소된 26.8%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내에서는 중화학공업이 지속적인 확대를 보였으며,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는 경공업의 비중을 초월하였고, 1994년에는 제조업생산의 약 2/3 정도를 차지할 수준까지 확대되

었다.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과 서비스산업의 확대를 볼 때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동안 산업구조도 상당히 고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分析模型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양국은 장기적인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제구조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은 국내산업간의 성장률 차이로 인해 상당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총생산의 최종수요항목별 및 산업별 구성비의 변화를 통해서만 세부산업별 성장과 생산구조변화 및 산업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DPG分析方法을 세분류의 산업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산업연관표체계에 응용하여 양국의 장기적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수요측면에서 분해하여 산업별 생산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DPG分析은 Chenery(1960)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Chenery, Shishido, and Watanabe(1962)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응용되고 있는 分析方法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나 각 연구마다 DPG의 정의방법이나 이를 어떤 요인으로 설명하는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²⁾ 따라서 본장에서는 DPG의 기본개념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分解方法 및 正規化(normalization)方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DPG란 각 산업이 비례적으로 성장한 경우와 실제의 성장간의

2) 이에 대한 설명은 渡部經彦·駿河輝和(1977), 陳光輝·藤川清史(1989)를 참조.

偏差로서 生産의 部門別 比重에 있어서의 變化程度를 측정하는 指標이다. 다시 말하면 時間變化에 따라 各 産業의 비중은 變化되는데, 이러한 變化가 일어난 현실의 狀態와 變化가 일어나지 않고 産業別 비중이 불변이라고 假定한 狀態와의 差를 數值化한 것이다. 이러한 DPG를 수식으로 定義한 것이 다음의 (1)식이다.

$$\delta X = X_2 - \alpha X_1 \quad (1)$$

δX : 各 産業의 DPG를 나타내는 벡터

X_1 : 各 産業의 제1기 生産액을 나타내는 벡터

X_2 : 各 産業의 제2기 生産액을 나타내는 벡터

α : 産業 전체(혹은 平均)의 성장배율

이러한 DPG式을 産業聯關分析의 模型式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第1期에서 需給均衡式은 非競爭 輸入型의 産業聯關模型을 이용하면 (2)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_1 = [(I - m_1^e) \otimes a_1] X_1 + [(I - m_1^i) C_1 + (I - m_1^f) F_1 + (I - m_1^j) J_1 + (I - m_1^e) E_1] \quad (2)$$

여기서 I 는 모든 因子가 1인 正方形行列이고, m_1^e 은 中間投入에 있어서 輸入比率를 나타내는 行列이며, a_1 는 投入係數行列이다. 그리고 \otimes 는 通常的인 行列의 積이 아니라 소위 行列의 Hadamard 積³⁾으로 行列의 因子 對 因子를 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I - m_1^e) \otimes a_1$ 는 國內投入係數行列을 나타내게 된다. 한편 I 는 恒等行列이며, C_1, F_1, J_1 및 E_1 는 각각 最終消費, 投資, 在庫增減,⁴⁾ 輸出 등

3) 만약 $A=(a_{ij})$ 이고 $B=(b_{ij})$ 이면 이들의 Hadamard 積은 $A \otimes B=(a_{ij}b_{ij})$ 이다 (Rao[1973], p. 30).

4) 거시경제적 분석에서 재고는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연속적인 시계열상에서 이의 증가와 감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상 불연속적인 두 시점간의 産業연관자료를 이용하는 DPG분석에서는 재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고를 보통 투자에

最終需要項目을 나타내는 벡터들이며, m_1^c , m_1^f , m_1^j 및 m_1^e 는 각각 소비, 투자, 재고증감 및 수출에 있어서 輸入比率을 나타내는 對角行列이다. 따라서 $(I - m_1^c)C_1$ 등은 國產品에 대한 最終需要가 되며 이러한 복잡한 형식을 취하는 것은 輸入品의 比率을 中間需要와 最終需要別로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2)식을 X_1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均衡生産量決定式이 얻어진다.

$$X_1 = [I - (\Pi - m_1^a) \otimes a_1]^{-1} [(I - m_1^c)C_1 + (I - m_1^f)F_1 + (I - m_1^j)J_1 + (I - m_1^e)E_1] \quad (3)$$

第2期에서도 동일한 均衡生産量決定式이 얻어진다.

$$X_2 = [I - (\Pi - m_2^a) \otimes a_2]^{-1} [(I - m_2^c)C_2 + (I - m_2^f)F_2 + (I - m_2^j)J_2 + (I - m_2^e)E_2] \quad (4)$$

(3)식과 (4)식을 (1)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되며 이것이 DPG를 설명하는 모형식이 된다.

$$\begin{aligned} \delta X = & B_2(I - m_2^c)\delta C + B_2(I - m_2^f)\delta F + B_2(I - m_2^j)\delta J \\ & + B_2(I - m_2^e)\delta E + [B_2(m_1^c - m_2^c)\alpha C_1 + B_2(m_1^f - m_2^f)\alpha F_1 \\ & + B_2(m_1^j - m_2^j)\alpha J_1 + B_2(m_1^e - m_2^e)\alpha E_1] \\ & + B_2[(\Pi - m_2^a) \otimes (a_2 - a_1)]\alpha X_1 + B_2[(m_1^a - m_2^a) \otimes a_1]\alpha X_1 \end{aligned} \quad (5)$$

여기서 $B_2 = [I - (\Pi - m_2^a) \otimes a_2]^{-1}$ 로 표시되는 제2기의 Leontief 逆行列이며, 需要項目의 DPG는 예를 들어 消費는 $\delta C = C_2 - \alpha C_1$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연관표의 작성에서 재고는 독립적으로 집계된다기 보다는 需給均衡式(재고증감=국내생산+수입-수출-소비-투자)에 의한 殘餘分(residual)의 성격으로 집계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고를 투자에 합산할 경우 투자의 기여도가 다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해하였다.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右邊의 第1項에서 第4項까지는 각각 소비, 투자, 재고증감, 수출 등 각 需要項目의 성장속도가 산업전체에 대해 總需要의 平均成長速度와의 差異로 인해 발생하는 DPG를 나타내며, 제5항에서 제8항은 각각 최종수요항목에 있어서 輸入依存度의 變化 또는 輸入代替의 進展으로부터 생기는 DPG이다. 제9항은 투입계수의 변화 또는 기술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DPG이다. 각 산업에서의 기술변화는 경제전체의 投入係數를 변화시키고 역행렬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각 산업의 생산수준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상호 관련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제9항은 경제전반에서 나타나는 기술변화가 각 산업의 생산비중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제10항은 중간투입에 있어서 수입의존도의 변화, 즉 수입대체의 진전으로부터 발생하는 DPG를 나타낸다.

그런데 (5)식은 제2기의 Leontief 역행렬을 이용하여 유도된 것으로, 이는 제1기의 Leontief 역행렬 $B_1 = [I - (\Pi - m_1^c) \otimes a_1]^{-1}$ 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begin{aligned} \delta X = & B_1(I - m_1^c) \delta C + B_1(I - m_1^f) \delta F + B_1(I - m_1^j) \delta J \\ & + B_1(I - m_1^e) \delta E + [B_1(m_1^c - m_2^c) C_2 + B_1(m_1^f - m_2^f) F_2 \\ & + B_1(m_1^j - m_2^j) J_2 + B_1(m_1^e - m_2^e) E_2] \\ & + B_1[\Pi - m_1^a] \otimes (a_2 - a_1) X_2 + B_1[(m_1^a - m_2^a) \otimes a_2] X_2 \quad (6) \end{aligned}$$

(5)식과 (6)식의 차이는 Paasche 形態의 지수와 Laspeyres 形態의 指數간의 차이와 같은 것이며, 두 식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이론적인 근거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식으로부터 계산된 결과의 算術平均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고의 관심사는 양국에 대하여 시기별로 생산의 변화 정

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光錫·洪性德(1990)을 참조.

도와 이를 초래하는 요인들의 크기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므로 변화 정도나 요인의 크기에 관련된 측정단위, 즉 평가기준, 화폐단위 등의 相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正規化를 통해 절대적인 크기를 상대적인 크기로 평가하고자 한다. 즉 正(+)의 DPG들과 負(-)의 DPG들은 절대값의 합이 같게 되므로 모든 DPG들을 더하면 零이 된다. 따라서 각 DPG들을 正의 DPG(또는 負의 DPG의 절대값)의 합계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正의 DPG들의 합은 100이 되고, 負의 DPG들의 합은 -100이 되어 국가별 또는 시기별 DPG의 비교가 매우 편리해진다. 다음 장의 모든 분석결과는 이러한 正規化된 결과로 나타낸다.

IV. 分析結果

분석에 앞서 資料利用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DPG분석에서는 가격변화에 의한 결과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不變價格으로 작성된 산업연관표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우선 일본의 경우 1914~54년의 비교를 위해서는 Chenery, Shishido, and Watanabe(1962)에서 1951년 불변가격으로 추계된 1914년과 1954년의 산업연관표를, 그리고 1960~70년, 1970~80년 및 1980~90년의 기간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日本總務廳에서 작성된 1970년 불변가격의 1960-65-70 接續産業聯關表, 1980년 불변가격의 1970-75-80 接續産業연관표 및 1990년 불변가격의 1980-85-90 接續産業연관표를 각각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1975-80-85 接續불변산업연관표」(1985년 불변가격)와 「1980-85-90 接續불변산업연관표」(1990년 불변가격)만

이 한국은행에서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일본의 경우와 분석기간 및 기준연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1960~70년에 대해서는 1960년 産業聯關表를 1970년 기준의 도매물가와 수입물가로 불변화하여 1970년 産業聯關表와 비교했고, 1970~80년에 대해서는 1970년표를 1980년 가격으로 불변화하여 1980년표와 비교했으며, 1980~90년에 대해서는 1990년 불변가격의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⁶⁾

한편 산업분류는 양국간 및 시기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것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1. 日本經濟

가. 1914~54년⁷⁾

〈표 3〉은 1914~54년의 40년 동안 일본경제에 있어서 DPG와 그

- 6) 不變化를 함에 있어서는 분석기간 전체에 대해 기준연도를 통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지만 여기에는 물가지수의 선택, 가중치의 선정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설사 적절한 방법으로 불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불변화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정규화를 통한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과를 비교하므로 그 차이는 더욱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간별로 상이한 연도에 의해 불변화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 7) 일본의 1914~54년 기간에는 비경쟁수입형의 산업연관표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Chenery, Shishido, and Watanabe(1962)에 掲載된 1954년의 競争輸入型을 기초로 분석을 행하였다. 輸入量을 中間需要와 最終需要로 分解할 수 없으므로 模型式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였다.

$$\begin{aligned} \delta X = & B_2(I - m_2) \delta C + B_2(I - m_2) \delta F \\ & + B_2(I - m_2) \delta J + B_2(I - m_2) \delta E \\ & + B_2(m_1 - m_2) \alpha(a_1 X_1 + C_1 + F_1 + J_1 + E_1) \\ & + B_2(I - m_2)(a_2 - a_1) \alpha X_1 \end{aligned}$$

여기서 m_1 , m_2 및 $B = [I - (I - m_2)a_2]^{-1}$ 는 각각 제1기와 제2기의 수입의 존도를 표시하는 대각행렬 및 Leontief 역행렬이다. 그리고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5)식에서와 같이 각각 소비요인, 투자요인, 재고요인 및 수출요인을 나타내며, 제5항은 수입대체요인을, 그리고 제6항은 기술변화요인이다. 한편 1914년 수입표는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제1기의 역행렬은 사용할 수 없었다.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각 산업에 대한 DPG의 부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기간동안에 비중이 축소된 산업은 농림수산업과 식료품으로 「衣食住」에서 「食」에 해당하는 산업들이다. 이와는 달리 제조업부문의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의 확대는 전산업의 평균 이상으로 성장한 산업들의 生産增加(正의 DPG) 중 44.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需要擴大가 음식료품에서 공업제품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建設・公共部門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大戰後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투자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全産業合計의 DPG를 보면 正의 DPG 중 36.2%가 투자확대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투자의 높은 신장은 모든 부문에서 正의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건설, 금속·금속제품, 일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78.1%에 달하는 투입계수변화(기술변화)의 效果로 金屬・金屬製品, 纖維・皮革, 都小賣, 製紙・製紙品, 運輸・通信, 化學製品, 石油・石炭製品 등의 확대에 공헌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수입대체효과도 22.8%로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化學製品과 金屬・金屬製品部門 등에서 국산화가 매우 진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투입계수의 正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한 생산기술의 변화가 새로운 投入需要를 유발시켰다는 것, 그리고 新産業의 出現이나 成長이 産業間의 去來를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수입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輸入代替産業의 進展에 의한 國內供給의 增加가 이전의 輸入需要를 代替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두 요인의 正의 效果는 이 시기 經濟構造의 高度化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에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등 經濟外的으로 극심

〈표 3〉 日本經濟의 DPG분석결과(1914~54)

($\alpha=3.792$)

23部門	正規化	要 因 別					
	偏差	消費	投資	在庫	輸出	輸入代替	技術變化
1 農林水産業	-54.9	-33.5	1.0	0.3	-3.6	-6.7	-12.3
2 石炭石油鑛業	-4.1	-0.9	0.4	-0.1	-1.3	-1.5	-0.6
3 其他鑛業	0.7	-1.0	1.0	-0.3	0.2	0.3	0.6
4 食料品	-20.6	-19.3	0.7	-1.7	-2.0	-1.9	3.5
5 纖維·皮革製品	12.4	3.0	1.2	-1.5	-4.6	3.7	10.5
6 木材·木製品	0.4	-1.0	1.1	-0.3	-1.1	0.4	1.3
7 製紙·紙製品	6.9	-0.6	0.5	0.1	-1.6	1.8	6.7
8 印刷出版	1.7	0.1	0.1	0.0	-0.1	0.1	1.5
9 高早製品	2.0	0.1	0.2	0.0	0.0	0.1	1.7
10 化學製品	8.5	-6.9	1.0	-0.4	-0.5	11.0	4.3
11 石炭·石油製品	4.2	-0.8	0.5	-0.1	-0.2	0.5	4.2
12 窯業土石	2.0	-0.9	1.2	-0.4	0.1	0.2	1.7
13 金屬·金屬製品	26.2	-6.0	6.7	-1.9	2.8	8.2	16.3
14 一般機械	5.5	0.0	2.7	-0.1	0.8	0.8	1.3
15 運送機械	-0.1	-4.6	1.3	-0.2	0.5	0.6	2.3
16 其他製造業	0.5	-0.4	0.2	-0.1	0.2	0.1	0.6
17 建設業	7.5	-2.5	8.2	0.0	0.0	0.1	1.8
18 電氣가스水道業	4.7	0.3	0.3	-0.1	-0.2	0.4	3.9
19 都小賣業	11.4	0.3	1.9	-0.4	-1.0	0.6	10.0
20 不動產業	-2.9	-3.7	0.1	0.0	0.0	0.0	0.8
21 運輸·通信	2.8	-2.4	1.2	-0.3	-2.9	1.0	6.3
22 서비스業	-17.5	-24.0	3.1	-0.2	-0.6	1.0	3.2
23 其 他	2.5	-6.7	1.7	-0.4	-2.4	1.9	8.5
統合7部門	正規化	要 因 別					
	偏差	消費	投資	在庫	輸出	輸入代替	技術變化
農林水産業(1)	-54.9	-33.5	1.0	0.3	-3.6	-6.7	-12.3
鑛業(2-3)	-3.4	-2.0	1.3	-0.4	-1.1	-1.2	0.0
輕工業(4-9,12,16)	5.3	-19.0	5.2	-3.9	-9.1	4.6	27.5
化學工業(10-11)	12.7	-7.7	1.5	-0.5	-0.7	11.5	8.5
重工業(13-15)	31.6	-10.6	10.7	-2.2	4.2	9.6	19.9
建設·公共(17-18)	12.2	-2.1	8.5	-0.1	-0.2	0.5	5.7
서비스業(19-23)	-3.6	-36.5	8.0	-1.3	-7.0	4.4	28.8
合 計	0.0	-111.5	36.2	-8.1	-17.4	22.8	78.1

주 : () 안의 숫자는 23부문의 산업을 의미함.

한 變動이 있었던 4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생산이 약 4배($\alpha=3.792$)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國際社會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戰後에도 국제사회로의 복귀가 그리 쉽지 않았으며, Dodge's line⁸⁾의 실시 등으로 수입대체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지만, 전후의 「傾斜生産方式」⁹⁾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國內經濟의 循環擴大를 발판으로 한 내수가 성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內需의 循環을 가능케 한 것은, 숙련된 기술과 생산라인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소기업들이 생산기지의 주변에 집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의해서 새롭게 창출되는 중간수요를 즉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는 보통 소득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 시기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의 生産效率을 개선하고 最終生産物의 價格上昇을 완화시켜 결국에는 수출확대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나. 1960~70년

이 기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高度成長期에 해당한다. <표 4>의 DPG분석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10년 동안 총생산의 규모가 3배($\alpha=2.864$)에 가깝게 확대되었다. 세부산업별 생산구조

8) 제2차세계대전 직후 일본경제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는데, 이의 억제와 일본경제의 재건을 위해 1949년 연합군총사령부의 경제고문인 J. M. Dodge가 내린 지시로, 이의 주요내용은 화폐공급의 급증을 復興金融金庫의 신규융자정지와 초균형재정 등으로 해소하고, 환율을 1달러당 360엔으로 단 일화해서 일본경제를 국제경제에 연계시키며, 특히 경제통제와 보조금의 폐지를 통해 일본경제의 시장경제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日本經濟新聞社[1996], p. 70).

9) 1940년대 후반의 일본은 戰後復興을 위해 경제를 전면적인 국가통제하에 두고, 석탄과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산업에 중점적으로 자금과 자재를 투입했는데, 이를 일컫는 말이다(日本經濟新聞社[1996], p. 898).

〈표 4〉 日本經濟의 DPG분석결과(1960~70)

($\alpha=2.864$)

28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 費	投 資	在 庫	輸 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1 農林水産業	-34.2	-19.0	1.0	-2.9	-1.1	-0.1	-5.9	-6.2
2 石油天然가스	-1.0	-0.3	0.5	-0.2	0.2	0.4	-0.4	-1.1
3 其他鑛業	0.0	0.0	0.0	0.0	0.0	0.0	0.1	-0.1
4 食料品	-22.5	-26.0	0.1	-1.2	-0.5	-0.7	7.4	-1.6
5 纖維製品	-10.0	-3.7	0.6	-0.3	-4.2	-0.4	-1.1	-0.9
6 木·紙製品	-0.5	-2.5	3.0	0.2	0.1	-0.1	-0.5	-0.7
7 化學製品	7.8	-1.4	0.7	0.3	1.5	-0.2	6.4	0.5
8 石油化學製品	3.7	-0.1	0.8	0.0	0.7	-0.2	2.3	0.2
9 鑛業土石	2.7	0.0	1.0	0.0	-0.1	0.0	1.9	0.0
10 鐵 鋼	12.2	-0.8	5.8	0.8	6.9	-0.2	-2.7	2.4
11 非鐵金屬	0.8	0.1	1.2	0.2	1.1	-0.1	-1.6	-0.1
12 金屬製品	7.1	0.3	1.5	0.7	0.4	0.0	4.4	-0.1
13 一般機械	10.0	-0.4	7.0	0.2	2.0	-0.1	0.7	0.6
14 電氣機械	11.9	1.7	4.9	1.2	3.1	-0.5	1.7	-0.2
15 運送機械	11.3	0.4	5.7	0.3	3.9	-0.1	1.2	0.0
16 精密機械	0.9	0.2	0.3	0.1	0.3	-0.1	0.2	0.0
17 其他製造業	6.0	-0.9	1.4	0.1	0.4	-0.4	5.4	0.0
18 建設業	7.9	-0.7	8.0	0.0	0.0	0.0	0.6	-0.1
19 電氣가스業	-0.7	-1.2	0.6	0.0	0.3	0.0	-0.4	0.0
20 水道業	0.6	0.6	0.1	0.0	0.0	0.0	-0.1	0.0
21 都小賣業	14.3	-1.9	5.9	0.3	1.5	-0.1	8.8	-0.3
22 金融保險	-3.8	-3.7	1.2	0.0	0.5	-0.1	-1.5	-0.2
23 不動産業	-3.8	-3.5	0.5	0.0	0.2	-0.1	-0.9	0.0
24 運輸業	0.4	-2.0	1.5	0.0	3.1	-0.2	-1.8	-0.2
25 通信業	0.7	-0.2	0.4	0.0	0.1	0.0	0.4	0.0
26 教育研究醫療	-10.2	-9.0	0.1	0.0	0.1	0.0	-1.4	0.0
27 서비스業	1.7	1.6	0.8	0.0	0.4	-0.2	-0.8	-0.1
28 其 他	-13.5	-22.6	1.1	0.1	1.2	-0.2	6.6	0.3
統合7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 費	投 資	在 庫	輸 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農林水産業(1)	-34.2	-19.0	1.0	-2.9	-1.1	-0.1	-5.9	-6.2
鑛業(2-3)	-1.0	-0.3	0.5	-0.2	0.2	0.4	-0.3	-1.2
輕工業(4-6,9,17)	-24.2	-33.0	6.1	-1.2	-4.3	-1.7	13.2	-3.2
化學工業(7-8)	11.5	-1.5	1.5	0.4	2.2	-0.4	8.7	0.7
重工業(10-16)	54.2	1.4	26.4	3.6	17.6	-1.2	3.9	2.6
建設·公共(18-20)	7.8	-1.3	8.7	0.0	0.4	0.0	0.1	-0.1
서비스業(21-28)	-14.2	-41.2	11.5	0.6	7.1	-0.9	9.3	-0.4
合 計	0.0	-94.8	55.5	0.1	22.0	-4.0	29.0	-7.8

주 : () 안의 숫자는 28부분의 산업을 의미함.

의 변화를 살펴보면 철강, 기계, 금속 등 중공업부문에 속하는 대부분의 산업들과 화학제품, 건설부문에서 생산비중의 확대가 관찰된 반면, 이전 기간에서는 생산비중의 확대를 나타냈던 경공업부문은 負의 DPG를 나타내 성장이 침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의 경제성장에는 중화학공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생산비중의 확대를 촉진한 요인도 이전 기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의 가장 주요한 성장요인은 투자요인으로 평균 이상으로 성장한 산업들의 생산비중확대 중 55%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에서 正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個別部門을 살펴보면 일반기계, 건설, 철강 등의 확대는 대부분 투자의 신장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제조업부문에서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한 合理化投資가 왕성하게 행해졌다는 것과, 또한 個體에너지를 液體에너지나 그의 2次에너지인 電力으로 代替하는 소위 「에너지革命」이 행해져서 에너지관련 大型工場이 잇달아 건설되었다는 것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투입산출구조의 변화는 29.0%의 正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전의 기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 식료품공업, 화학공업, 금속제품 및 기타제조업 등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농림수산업에서는 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中間需要패턴이 농림수산업제품에 비해 重工業製品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요하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이 변화가 공급측면에서 각 산업의 생산비중을 변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기간에는 수출도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正의 효과를 보인 수출신장은 특히 철강, 운송기계, 전기기계 등의 부문에서 생산비중의 확대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 노동력, 생산기술, 대외적인 경제여건 등 다양

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특히 기업들의 합리화투
자나 에너지혁명을 통한 제조업의 비용절감이 수출경쟁력을 개선하
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엔화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서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엔화환
율은 1949년의 고정환율제 채택 이래 1960년대에도 계속해서 1달러
당 360엔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香西 泰(1995)에 의하면 엔의 購買
力平價는 1950년대 초에 1달러당 190엔 정도, 1960년대에 들어서서
는 150엔 정도라고 試算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다면 고도성장기의
엔화는 매우 過小評價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생산비중의 확대를 위한 소비의 역할은 매우 작았다. 소비
의 절대수준은 투자나 수출에 비해 매우 크지만 소비의 증가율은
투자나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산업생산구조의 변
화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존도의
변화는 최종수요와 중간수요 모두에서 대체로 負의 效果를 나타냈
다. 이것은 수입대체가 경제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끝
나고, 오히려 소득증가에 따라 혹은 다양한 산업의 생산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 수입이 평균성장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해석
된다.

다. 1970~80년

1970년대의 일본경제는 「닉슨」 쇼크¹⁰⁾에 의한 달러本位制의 崩壞
와 엔화의 暴騰, 그리고 세계경제를 침체국면으로 몰고간 두 차례

10)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과징금의 부과,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 등의 긴급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로 인해 엔화환율이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1달러당 360엔에서 308엔으로 대폭적으로 절상되었다. 이러한 절상
은 1970년을 기점으로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한 일본경제를 더욱 침체케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日本經濟新聞社[1996], pp.
201~202).

〈표 5〉 日本經濟의 DPG분석결과(1970~80)

(α=1.563)

28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費	投資	在庫	輸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1 農林水産業	-19.9	-7.2	-0.5	-0.2	-0.7	-2.2	-6.8	-2.4
2 石油天然가스	-1.6	0.0	-0.3	-0.5	0.2	0.1	-0.4	-0.5
3 其他鑛業	-0.2	0.0	0.0	0.0	0.0	0.0	-0.1	-0.1
4 食料品	-9.8	-6.7	-0.1	-0.8	-0.3	-1.9	0.0	0.0
5 纖維製品	-9.4	-2.4	-0.3	-0.9	-1.6	-1.0	-2.2	-1.0
6 木·紙製品	-10.8	-0.4	-2.2	-0.8	0.4	-0.3	-5.9	-1.6
7 化學製品	0.8	1.3	-0.5	-1.7	1.2	-0.3	2.6	-1.7
8 石油化學製品	-7.1	-1.0	-1.3	-2.1	1.5	-0.6	-3.3	-0.3
9 窯業土石	-2.1	-0.3	-1.0	-0.3	0.4	-0.1	-0.6	-0.3
10 鐵 鋼	-10.9	0.4	-5.0	-3.0	8.7	0.0	-12.1	0.2
11 非鐵金屬	-0.4	0.4	-0.3	-0.2	3.0	-0.1	-2.2	-1.0
12 金屬製品	0.2	0.0	-1.2	-1.7	1.0	0.0	2.3	-0.2
13 一般機械	-1.0	-0.2	-8.6	-0.5	6.4	0.4	1.8	-0.3
14 電氣機械	18.0	1.8	5.0	-0.8	9.6	-0.1	3.0	-0.5
15 運送機械	11.8	-0.5	-6.2	0.3	12.2	-0.3	6.5	-0.2
16 精密機械	2.9	0.6	0.6	-0.1	1.7	0.2	-0.2	0.0
17 其他製造業	-5.0	-0.7	-0.5	-1.1	1.3	-0.4	-2.6	-0.9
18 建設業	-11.9	0.9	-10.0	-0.1	0.2	0.0	-2.8	-0.1
19 電氣가스業	2.7	0.4	-0.6	-0.4	1.0	-0.1	2.7	-0.3
20 水道業	1.4	0.1	-0.1	0.0	0.1	0.0	1.3	0.0
21 都小賣業	6.2	3.5	-4.3	-1.4	3.1	-0.3	6.2	-0.7
22 金融保險	-2.2	-5.5	-0.8	-0.4	1.7	-0.1	3.1	0.0
23 不動產業	14.4	11.6	-0.3	-0.1	0.3	0.0	3.0	-0.1
24 運輸業	20.6	5.0	-1.4	-0.7	1.8	-0.6	15.7	0.7
25 通信業	0.9	0.8	-0.2	-0.1	0.4	-0.1	0.2	-0.1
26 教育研究醫療	20.2	15.2	-0.2	-0.1	0.3	0.0	4.9	-0.1
27 서비스業	-2.4	-8.4	-0.6	-0.3	1.0	-0.9	7.0	-0.3
28 其 他	-5.5	5.9	-0.6	-1.0	1.2	0.0	-9.3	-1.6
統合7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費	投資	在庫	輸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農林水産業(1)	-19.9	-7.2	-0.5	-0.2	-0.7	-2.2	-6.8	-2.4
鑛業(2-3)	-1.8	0.0	-0.4	-0.5	0.2	0.1	-0.5	-0.6
輕工業(4-6,9,17)	-37.0	-10.6	-4.2	-3.8	0.2	-3.6	-11.2	-3.7
化學工業(7-8)	-6.3	0.3	-1.8	-3.8	2.7	-1.0	-0.7	-2.1
重工業(10-16)	20.6	2.6	-15.7	-5.9	42.5	0.2	-1.0	-2.0
建設·公共(18-20)	-7.8	1.4	-10.7	-0.5	1.3	-0.2	1.2	-0.4
서비스業(21-28)	52.2	28.2	-8.5	-4.1	9.9	-1.9	30.9	-2.2
合 計	0.0	14.7	-41.7	-18.9	56.1	-8.6	11.8	-13.3

주 : () 안의 숫자는 28부문의 산업을 의미함.

의 오일쇼크 등으로 「日本列島改造論」¹¹⁾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표 5>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0년간 총생산액의 성장이 1.5배 정도로 1960~70년 기간의 성장배율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산업별 DPG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농림수산업, 광업 및 경공업부문의 생산비중이 계속해서 감소되었고, 중화학공업에서는 화학공업이 負의 DPG를 나타내 주도산업으로부터 탈락하였으며, 일반기계, 운송기계 및 정밀기계 등 기계부문이 주도산업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제조업부문의 부진에 반해 생산비중이 확대된 부문은 運輸業, 教育研究醫療, 不動產 등 서비스부문이다. DPG로 측정된 생산비중의 확대 중 절반 이상이 廣義의 서비스부문(21産業-28産業)의 확대로 설명되고 있다.

DPG를 설명하는 요인에 주목해보면 1960년대에 가장 큰 正의 寄與를 한 투자요인이 반대로 가장 큰 負의 要因이 되었다. 이것은 오일쇼크로 인한 經濟의 不透明性이 투자감퇴를 초래한 동시에, 1960년대까지 성행했던 해외로부터의 신기술도입에 관련한 大規模의 設備投資가 一段落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투자의 감소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특히 일반기계, 운송기계 및 건설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다만 전기기계부문에서는 투자가 正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生産設備의 自動化와 事務自動化를 위한 투자가 유인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투자요인과는 반대로 성장에 가장 큰 正의 기여를 한 것은 수출요인이며, 운송기계, 전기기계, 철강 등의 산업에서 수출이 생산비중의 확대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엔고에

11) 1972년에 들어선 田中角榮 內閣이 공시한 總體的인 地域開發計劃과 복지사회 제도의 대폭적인 확대를 지향하는 內需爲主의 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주목적은 「닉슨」 쇼크에 의한 엔화절상과 수출의 급감으로 경기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森口親司[1995], pp. 10~11).

도 불구하고 수출이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이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일본상품의 강한 國際競爭力과, 상대적으로 부진한 國內需要를 輸出促進으로 補填하려는 企業의 努力¹²⁾의 결과이며, 특히 기계부문과 철강부문에서 지속적인 수출증가가 가능했던 것은 産業合理化政策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¹³⁾

한편 이제까지는 正의 要因이 되지 못했던 消費가 처음으로 全産業合計에서 正의 DPG를 나타냈으며, 특히 제3차산업의 확대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제3차산업의 확대에는 투입계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간수요패턴의 변화도 큰 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서비스산업의 확대, 바꾸어 말해서 「經濟의 서비스화」¹⁴⁾가 中間需要와 最終需要 兩面에서 進展되기 시작하였다.

수입의존도의 변화는 이 기간에도 負의 요인이었다. 수출경쟁력

12) 이 시기 일본의 기업들은 엔고와 유가과동에 의한 불황을 打開하기 위해 減量經營을 실시하였다. 노동비용절감을 위한 고용량의 억제, 금융비용절감을 위한 타인자금의 차입억제, 이외의 비용절감을 위한 재고관리의 합리화,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중간투입물의 절약기술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申村隆英 [1982], pp. 349~359).

13) 산업간의 상호연관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중심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합리화투자를 촉진했던 일본의 산업합리화정책은 1942년 12월 通産省에 설치된 産業合理化審議會의 합리화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철강·기계부문의 連鎖革新으로 1950년 말부터 鐵鋼産業은 국제경쟁력을 얻기 시작했으며, 철강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받아 造船業, 機械工業, 自動車産業 등이 급속한 성장을 보였고, 급기야 1970년대에는 자동차산업이 최대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日本經濟新聞社[1995], pp. 87~90).

14) 經濟의 서비스화란 論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Bell and Kozmetsky는 “財貨生産爲主의 經濟에서 知識生産爲主의 經濟로의 移行 및 大量生産體制에서 非定形的의 生産體制로의 移行”으로 정의하고 있고, 日本開發銀行은 “分業의 進展에 따라 製造業內部에서 나타나는 서비스業務의 外注化”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원인은 제조업에서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경영컨설팅, 판매계획 및 광고기획, 환경설비 등)의 수요가 증대되고, 한편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산업(레저, 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韓國産業銀行[1995], pp. 110~112).

을 잃기 시작한 경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수입의존도가 상승하였고, 중간수입과 최종수입을 합한 전체적인 負의 효과도 이전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커졌다.

라. 1980~90년

일본경제에 있어서 1980년대는 부단히 기복이 많았던 10년이었다. DPG분석에서는 분석기간의 처음과 끝을 직선적으로 잇는 검토밖에는 할 수 없으므로 1980년대의 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경제는 제2차 오일쇼크의 경제불황을 비교적 잘 넘겼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省에너지技術¹⁵⁾의 확립과 생산성향상으로 비용상승을 최소한으로 억제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해소되었고, 미국의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엔화환율이 계속 과소평가되고 있었다. 이 결과 생산성향상이 높았던 전기기계나 운송기계부문을 중심으로 美國에 대해 輸出超過가 顯在化되어, 급기야는 1985년 「플라자合意(Plaza Accord)」¹⁶⁾로 대폭적인 엔화절상이 강요되었다. 플라자合意 이후의 不況을 「엔高不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이 시기에 불황으로부터의 탈출과 그 이상의 엔고를 억

15) 한마디로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1970년대초 이후 일본산업에서 기술혁신의 주요과제는 엔高와 油價暴騰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비절약이었고, 그것은 결국 에너지節約型 技術革新으로 집약된다. 즉 생산공정에서 되도록 석유를 쓰지 않는 「오일레스化」와 각종 排氣가스나 排熱 등의 非에너지를 회수하는 설비의 도입과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金昌南[1992], pp. 90~92).

16) 1985년 8월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선진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의 합의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그때까지 계속되어던 엔低와 달러高의 시정과 더불어 美國의 貿易 財政赤字의 해소 및 原油價格의 下落을 위해 선진 5개국이 정책적 협조를 도모한다는 것이다(日本經濟新聞社[1996], pp. 555~556).

〈표 6〉 日本經濟의 DPG분석결과(1980~90)

(α=1.490)

28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費	投資	在庫	輸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1 農林水産業	-7.7	-4.3	0.3	0.7	-0.2	-0.4	-3.7	0.0
2 石油天然가스	-1.5	0.0	0.2	0.0	-0.1	0.0	-1.2	-0.5
3 其他鑛業	-0.1	0.0	0.0	0.0	0.0	0.0	-0.2	0.0
4 食料品	-5.7	-5.0	0.3	0.1	-0.4	-1.2	1.4	-0.9
5 纖維製品	-6.4	-1.3	0.5	-0.1	-1.7	-1.4	-1.7	-0.7
6 木·紙製品	-4.1	0.1	1.8	-0.3	-0.2	-0.4	-4.3	-0.8
7 化學製品	0.2	1.1	0.8	-0.1	0.1	-0.6	-0.3	-0.8
8 石油化學製品	-16.1	0.4	0.8	0.5	-0.9	0.0	-14.9	-2.0
9 窯業土石	-3.7	0.1	0.8	-0.1	-0.4	-0.1	-3.8	-0.3
10 鐵 鋼	-14.7	0.3	3.0	0.5	-6.7	-0.3	-10.3	-1.3
11 非鐵金屬	-2.4	0.4	0.7	-0.1	-0.2	-0.1	-1.8	-1.2
12 金屬製品	0.0	-0.9	0.8	0.1	-1.0	-0.2	1.4	-0.1
13 一般機械	3.3	0.3	8.9	-0.4	0.7	-0.1	-5.9	-0.3
14 電氣機械	22.7	4.4	8.8	-0.6	7.5	-0.5	3.3	-0.2
15 運送機械	-1.9	4.3	0.1	-1.2	-2.1	-1.4	-1.9	0.3
16 精密機械	-0.3	0.0	0.6	-0.1	-0.2	-0.1	-0.4	-0.1
17 其他製造業	5.7	0.8	1.4	0.1	0.0	-1.8	5.2	-0.1
18 建設業	6.2	0.2	6.0	0.0	-0.1	-0.1	0.3	-0.1
19 電氣가스業	-5.8	0.2	0.8	0.0	-0.3	-0.2	-6.0	-0.3
20 水道業	0.5	0.2	0.2	0.0	0.0	0.0	0.2	-0.1
21 都小賣業	0.6	3.0	6.2	-0.1	-1.0	-0.6	-6.6	-0.3
22 金融保險	8.0	4.1	1.1	0.0	-0.3	-0.4	4.1	-0.6
23 不動產業	2.6	2.6	0.6	0.0	-0.1	-0.1	-0.3	-0.1
24 運輸業	-20.8	-9.9	2.0	0.0	-1.9	-1.7	-8.8	-0.5
25 通信業	2.1	1.6	0.4	0.0	0.0	-0.1	0.2	-0.1
26 教育研究醫療	8.5	3.4	0.8	-0.1	0.3	-0.1	4.4	-0.2
27 서비스業	39.9	9.4	4.2	-0.1	0.7	-1.9	28.4	-0.9
28 其 他	-8.7	-2.1	0.6	0.4	0.1	-0.2	-6.0	-1.5
統合7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費	投資	在庫	輸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農林水産業(1)	-7.7	-4.3	0.3	0.7	-0.2	-0.4	-3.7	0.0
鑛業(2-3)	-1.7	0.0	0.2	0.0	-0.1	0.1	-1.4	-0.4
輕工業(4-6,9,17)	-14.3	-5.4	4.8	-0.3	-2.5	-4.9	-3.1	-2.8
化學工業(7-8)	-15.9	1.5	1.6	0.4	-0.8	-0.6	-15.2	-2.8
重工業(10-16)	6.6	8.7	22.9	-1.7	-2.1	-2.7	-15.7	-2.8
建設·公共(18-20)	0.8	0.6	6.9	0.0	-0.4	-0.3	-5.5	-0.4
서비스業(21-28)	32.0	12.1	16.0	0.1	-2.2	-5.1	15.4	-4.2
合 計	0.0	13.1	52.8	-0.8	-8.4	-13.9	-29.2	-13.5

주 : () 안의 숫자는 28부문의 산업을 의미함.

제하고 투자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대와는 달리 설비투자를 자극하지 못하고 주식과 토지 등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이른바 「거품經濟」를 유도했다. 1980년대는 이렇듯 변화가 많은 10년이었지만 총생산은 1970년대와 비슷하게 1.5배 증가하였다.

이 기간의 DPG분석결과는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농림수산업, 광업 및 경공업부문의 생산비중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감소되었고,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들이 負의 DPG를 나타낸 반면 전기기계산업에서는 22.7%라는 매우 큰 正의 DPG가 계측되었다. 전기기계산업의 성장요인으로는 설비투자와 수출신장 이외에 소비나 기술변화에서 正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Electronics 혁명」¹⁷⁾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제1차산업과 대부분의 제2차산업들에서 생산비중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제3차산업은 狹義의 서비스산업(27산업), 敎育研究醫療 및 金融保險 등을 중심으로 생산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여기에는 중간투입구조의 변화(기술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비증가와 투자증가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이전 기간에 이어 계속되었지만 세부산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70년대에는 운수업, 부동산업 등이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주축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에는 1970년대에

17) 1970년대에 엔高와 고물가에 의한 임금상승 및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기업들은 「machining center」, 산업용로봇, NC공작기계 등 새로운 기술장비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가공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ME(Micro-Electronics)기술의 광범위한 보급과 활용을 통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고도가공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다.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기술혁신은 ME化에 의한 輕薄短小化에 있었으며 이것에 의해 발전한 대표적인 산업이 전기기계와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이었다(金昌南[1992], p. 94).

負의 DPG를 기록한 협의의 서비스업(개인서비스 등)이 正의 DPG 중 약 40%를 차지하여 금융보험업(8%)과 함께 전체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1970년대와는 성격이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경제의 서비스화」의 원인은 크게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이행 및 제조업 내부의 서비스업 무의 외주화에 따른 전문생산자서비스의 증가와, 전반적인 소득증가에 따른 레저, 관광 등 소비자서비스수요의 증대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970년대의 「경제의 서비스화」는 주로 생산자서비스부문의 팽창에 의해 야기된 반면, 1980년대는 거품期の 리조트 붐이라는 일시적인 현상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의 확대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산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각 요인의 크기를 보면 투자요인이 가장 크게 계측되었지만, 이것은 1985년 이래 엔고의 영향에 따른 수출부진과 최종재 및 중간재의 수입증가로 인해 투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투입계수변화는 전체로는 負의 要因으로 돌아섰으며,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부문의 비중을 저하시킨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是 省에너지·省資源技術의 確立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비는 전체적으로는 正의 要因으로 작용하고는 있으나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는 低成長期에는 소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2. 韓國經濟

가. 1960~70년

1960년대의 DPG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전 기간인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의 한국경제의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향후 분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역사적 과정을 볼 때 1945~60년까지의 기간은, 일본의 식민지적 예속경제에서 자주적인 독립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1950년 6·25動亂의 피해로부터 재건을 서둘러 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으므로,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산업 구조는 농업과 어업이 중심이었으므로 농업의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되는 전근대적인 구조였다. 특히 6·25動亂으로 산업의 생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국내생산과 국내수요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累積的인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제조업은 미국의 原綿과 原麥의 원조도입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생활품을 생산하는 섬유·의복, 製粉, 製糖 등의 소비재산업과, 전쟁피해의 복구를 위해 정부가 기간산업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멘트, 판유리, 전력, 화약 및 철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196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여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고, 경제적으로는 한국경제의 발전전략에 토대를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1차계획(1962~66년)과 2차계획(1967~71년)이 실시되는 등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된 시기이다. <표 7>의 DPG 분석결과에서도 보듯이 10년동안 총생산이 약 4배($\alpha=3.954$)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농림수산업과 광업, 그리고 飮食料品の 생산비중이 축소되고, 의복, 기타제

〈표 7〉 韓國經濟의 DPG분석결과(1960~70)

(α=3.954)

28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費	投資	在庫	輸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1 農 業	-57.7	-60.4	0.7	7.0	-0.6	-6.5	-1.1	3.1
2 林 業	-1.7	-0.8	2.6	-0.4	1.9	0.5	-2.7	-2.7
3 水産業	-0.6	-0.9	0.0	0.3	0.7	0.0	-0.7	0.0
4 鑛 業	-1.3	-0.7	0.9	5.0	0.4	-5.6	0.1	-1.4
5 食料品	-1.1	-4.8	0.1	-0.1	1.0	0.0	2.2	0.5
6 飲 料	-9.6	-11.0	0.1	-1.4	0.0	0.5	2.3	0.0
7 筲 排	1.7	4.4	0.0	-0.1	0.2	0.1	-2.7	-0.2
8 織 維	-6.1	-9.6	0.1	-0.5	2.4	0.7	-0.8	1.7
9 織 物	0.4	-3.5	0.1	0.1	2.0	0.1	2.3	-0.7
10 衣 服	14.1	7.9	1.3	0.0	6.9	1.7	-3.5	-0.2
11 革製品	-1.0	-0.5	0.0	-0.5	0.1	0.0	0.0	-0.1
12 木製品	4.6	-1.0	0.8	0.0	2.5	0.0	2.1	0.2
13 製紙·紙製品	-1.7	-3.0	0.3	0.2	0.5	0.0	0.7	-0.4
14 化學製品	11.0	-1.0	0.7	-0.1	1.6	0.1	5.8	3.9
15 石油化學製品	7.6	0.0	0.5	0.2	1.2	0.0	0.6	5.0
16 窯業土石	3.4	-0.8	2.2	0.0	0.4	-0.1	1.1	0.5
17 鐵 鋼	6.0	-0.3	2.1	0.5	0.8	-0.3	3.9	-0.6
18 非鐵金屬	0.4	-0.1	0.3	-0.3	0.4	0.0	0.4	-0.4
19 金屬製品	-1.3	-0.6	1.3	-0.1	0.6	-0.3	-1.2	-1.0
20 一般機械	-0.1	-0.1	1.8	0.2	0.1	-2.2	0.4	-0.4
21 電氣機械	5.0	0.3	1.0	0.2	1.3	0.7	1.3	0.2
22 運送機械	5.8	0.1	5.8	0.2	0.2	-1.4	1.5	-0.6
23 其他製造業	6.0	0.3	-0.4	0.0	3.4	1.3	0.9	0.5
24 建設業	19.7	-0.4	19.8	0.0	0.2	0.0	0.0	0.0
25 電氣水道가스	-0.2	-1.1	0.6	0.2	0.5	-0.2	-0.4	0.1
26 運輸通信	4.8	0.7	1.9	0.2	3.0	-0.2	-1.5	0.7
27 都小賣業	9.6	-1.7	4.7	0.3	2.4	-0.1	3.4	0.6
28 其他서비스業	-17.7	-22.1	3.6	0.4	4.2	0.3	-4.8	0.7
統合7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費	投資	在庫	輸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農林水産業(1-3)	-60.0	-62.1	3.4	6.9	2.0	-6.0	-4.5	0.4
鑛業(4)	-1.3	-0.7	0.9	5.0	0.4	-5.6	0.1	-1.4
輕工業(5-13,16,23)	10.7	-21.7	4.7	-2.3	19.2	4.2	4.6	1.9
化學工業(14-15)	18.6	-1.0	1.3	0.1	2.9	0.0	6.4	8.9
重工業(17-22)	15.7	-0.7	12.3	0.7	3.4	-3.4	6.3	-2.8
建設·公共(24-25)	19.4	-1.4	20.4	0.2	0.7	-0.2	-0.4	0.2
서비스業(26-28)	-3.2	-23.2	10.2	1.0	9.6	0.0	-2.9	2.1
合 計	0.0	-110.8	53.2	11.7	38.2	-11.0	9.6	9.2

주 : () 안의 숫자는 28부문의 산업을 의미함.

조업, 목제품 등의 경공업과 대부분의 중화학공업 및 건설업에서 생산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전체의 평균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한 산업들의 생산비중확대 중 약 65%가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확대로 설명되고 있어 공업성장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요인별로는 투자요인이 53.2%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타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이러한 투자확대의 연관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가 건설업에 미친 효과는 正의 DPG 중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1960년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기간산업을 위한 공장건설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¹⁸⁾

두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수출이었다. 투자요인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기여도를 보이지만 正의 DPG 중 38.2%를 설명하고 있으며, 의복 및 섬유류와 기타 제조업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중의 확대에 기여했다. 수출효과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正의 DPG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생산구조였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인이지만 그 당시 실시했던 수출보조금이나 수출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등 수출지향정책도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지표가 되는 중간투입의 수입대체효과

18) 1960년대에 있어서 인프라부문의 확충과 기간산업시설의 건설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인프라부문의 확충으로 경인철도복선의 완공(1964), 서울중앙선 전철화(1970), 경인고속도로의 개통(1969), 경부고속도로의 개통(1970), 호남·남해고속도로의 완공(1973), 소양강댐의 완공(1972), 大單位 鑛山開發(1965) 등이 있었으며, 기간산업시설의 건설로는 울산정유공장 준공(1963), 제3비료, 제4비료 및 한국비료공장의 착공(1965), 울산석유화학공단의 기공(1967), 구미전자공업단지의 건설(1972) 등이 있었다(韓國産業銀行[1995], pp. 48~51).

및 기술변화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正의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나 수출의 확대효과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기술변화는 화학공업, 철강업에서 상당한 생산확대의 효과를 가져왔고, 중간수요의 수입대체도 화학공업에서 매우 큰 正의 DPG을 보이고 있다.

나. 1970~80년¹⁹⁾

1970년대는 오일쇼크와 국제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긴축과 감량경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정책을 쓴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고도성장정책으로 일관했다. 이 시기의 한국의 경제정책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집중된다.²⁰⁾ 이를 대표하는 것이 1973년 1월 朴正熙 大統領의 「중화학공업화선언」이며, 이에 의해 철강, 석유화학, 선박, 기계, 비철금속 및 전자 등 6개 분야의 중점육성을 결정하고, 이들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분배하였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한국경제

-
- 19) 한국경제에 있어서 1980년은 政治的인 激變과 극심한 냉해로 실질GDP성장률이 1962년 이래 최초로 감소한 異例的인 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연속적인 두 시점간을 비교하는 DPG분석의 특성상 전산업의 평균성장이 1970~80년의 기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1980~90년의 기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연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으나 1980년을 분석시점으로 사용한 이유는 우선 산업연관표의 불변화에 대한 어려움 및 일본과의 통일성 있는 비교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표 2>의 구조변화추이를 볼 때, 그리고 閔庚輝(1993)의 pp. 3~4에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듯이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구조변화추세, 특히 투입산출의 구조변화추세에서 1980년도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20)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은 제2차5개년계획(1967~71년)에서도 “화학, 철강, 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의 기틀을 잡는다”는 특정분야에 대한 강조로 표출되었고, 이러한 입장이 제3차5개년계획(1972~76년)에서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공업화의 고도화를 기한다”는 일반화된 정책목표로 나타났다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73년 7월 종합제철공장을 포함에 준공한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趙淳[1991], pp. 7~12).

〈표 8〉 韓國經濟의 DPG분석결과(1970~80)

($\alpha=3.481$)

28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費	投資	在庫	輸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1 農 業	-60.3	-49.9	-0.1	-6.5	0.5	1.0	-7.2	1.8
2 林 業	-4.7	-2.4	-1.6	0.3	0.1	0.3	-1.5	0.1
3 水産業	-2.6	-1.7	0.0	0.0	-0.3	-0.1	-0.4	0.0
4 鑛 業	-10.6	-1.0	-0.2	1.1	-1.1	-1.2	-4.2	-4.1
5 食料品	12.9	8.7	0.0	0.0	0.5	0.1	3.2	0.4
6 飲 料	0.4	1.2	0.0	0.1	0.0	0.0	-1.0	0.0
7 筭 材	1.4	1.1	0.0	0.3	0.0	0.0	0.0	0.0
8 纖 維	12.2	0.5	0.0	0.3	5.9	0.1	5.3	0.1
9 織 物	2.8	1.4	0.1	0.2	2.4	0.0	-1.4	0.2
10 衣 服	-2.5	-2.4	0.0	0.2	0.4	0.0	-0.8	0.1
11 革製品	5.3	1.3	0.0	0.3	3.9	0.0	0.0	-0.2
12 木製品	-1.3	0.1	-0.1	-0.5	-0.8	0.1	-0.2	0.0
13 製紙·紙製品	1.5	0.0	0.0	0.0	0.8	0.2	0.0	0.5
14 化學製品	12.4	-3.0	0.1	-2.0	6.2	1.0	4.6	5.4
15 石油化學製品	-8.2	-6.1	0.0	-1.2	2.7	0.9	-3.2	-1.2
16 窯業土石	1.3	0.0	-0.6	-0.3	1.0	0.2	0.7	0.3
17 鐵 鋼	12.0	-0.1	-0.1	-0.7	7.7	0.9	0.6	3.8
18 非鐵金屬	1.3	0.1	0.3	-0.8	1.2	0.9	-0.8	0.4
19 金屬製品	2.5	0.0	0.0	-0.1	1.7	0.1	0.2	0.7
20 一般機械	4.6	-0.1	0.8	0.3	1.0	0.9	1.9	-0.3
21 電氣機械	12.0	0.8	2.0	-9.9	5.0	10.8	2.4	0.8
22 運送機械	4.2	0.0	1.0	0.3	2.8	0.0	0.5	-0.4
23 其他製造業	2.0	-0.5	0.3	0.1	0.7	0.3	1.1	0.0
24 建設業	-5.4	-0.8	-4.9	-0.1	-0.3	0.1	0.6	0.0
25 電氣水道가스	1.5	-0.2	0.1	-0.3	1.5	0.4	-0.5	0.6
26 運輸通信	3.2	-1.4	0.0	-0.3	5.4	0.4	-0.1	-0.8
27 都小賣業	-4.4	-5.1	0.4	-0.8	5.1	1.1	-5.6	0.5
28 其他서비스業	6.7	-1.2	0.9	-0.9	2.3	1.1	4.3	0.3
統合7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費	投資	在庫	輸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農林水産業(1-3)	-67.5	-53.9	-1.7	-6.2	0.2	1.2	-9.1	2.0
鑛業(4)	-10.6	-1.0	-0.2	1.1	-1.1	-1.2	-4.2	-4.1
輕工業(5-13,16,23)	35.8	11.3	-0.2	0.8	14.8	1.0	6.9	1.2
化學工業(14-15)	4.1	-9.1	0.1	-3.2	8.9	1.9	1.4	4.2
重工業(17-22)	36.6	0.6	3.9	-10.9	19.4	13.6	4.8	5.1
建設·公共(24-25)	-3.9	-1.1	-4.8	-0.4	1.2	0.5	0.0	0.6
서비스業(26-28)	5.6	-7.7	1.3	-2.0	12.8	2.6	-1.5	0.0
合 計	0.0	-60.9	-1.4	-20.7	56.1	19.6	-1.6	9.0

주 : () 안의 숫자는 28부분의 産業을 의미함.

는 고도성장을 달성한다. 이 시기의 총생산의 증가는 <표 8>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3.5배($\alpha=3.481$) 정도이며, 이는 1960년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산업별 성장을 보면 제1차산업의 생산비중은 1960년대에 이어 계속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建設業도 이전 기간과는 달리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반면에 경공업부문에서는 섬유 및 직물, 혁제품 등의 생산이 확대되었고, 화학제품, 철강 및 전기기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에서 생산비중의 확대가 관측되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제조업전체에서 附加價値가 높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구조고도화의 진전은 DPG의 요인별 분석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기간중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증대였다. 수출의 상대적 증가가 正의 DPG 중 56.1%를 설명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은 이전 기간의 경공업제품 중심에서 화학제품, 철강, 전기기계 등 중화학공업제품에까지 확대되었다. 1970년대는 세계경기의 불황으로 국제시장이 공급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제품이 국제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시켰다는 것은 한국제품에 상당한 국제경쟁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해외로부터의 적극적인 기술도입으로 국내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임금상승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한 수출지향정책의 영향이 컸으며, 또한 월남전의 특수와 中東建設붐이 수출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출 이외에 경제성장에 正의 효과를 가져온 요인은 수입대체로 正의 DPG 중 거의 30%(최종재수입대체 19.6%, 중간재수입대체 9.0%)에 달하는 기여를 하였다. 화학제품, 전기기계, 철강에서는 최종재와 중간재 양쪽에서 수입대체의 빠른 진행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전기기계, 화학제품에서는 기술변화의 효과가 이들 산업의

성장에 일정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종생산물의 수출에 상당히 진력하면서 중간수요를 포함한 내수의 순환에도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조금씩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경제에서 1970년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경제의 자율성도 크게 증가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투자는 負의 要因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1970년대 후반에 대두되었던 기업부실화의 문제²¹⁾나 1980년의 정치적인 불안과 냉해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는 수출의 현저한 확대에 따른 투자의 상대적 감소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전체에 걸쳐서 투자는 <표 2>에서도 보듯이 GDP에 대한 비중이 1970년의 25.1%에서 1980년에는 32.1%로 확대되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 막대한 증가(1970~80년 동안 GDP에 대한 비중이 14.1%에서 33.9%로 확대)로 인하여 투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평균 이하의 기여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1980~90년

1980년대초 한국경제는 국내적으로 1979년 10월 대통령시해사건과 1980년 5월 광주사태 등 정치적인 불안과 대홍작, 대외적으로는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각국의 신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의한 수출감소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더욱이 그동안 누적된 純外債規模²²⁾가 GDP의 35%를 상회하는 등 매우 어려운 국

21)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중화학공업을 편중지원함으로써 1970년대 중반부터 여러 부문에서 설비투자의 과잉·중복이 초래되어 1970년대 후반에는 기업의 부실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安忠榮·金周勳[1995], p. 333).

22) 韓國의 純外債(總外債-對外資産)規模는 1970년에 15억7천달러 정도였으나 1980년에는 196억3천달러로 상승하며 1985년의 335억4천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81~85년 기간의 순외채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외채위기로까지 인식되기도 하였다.

〈표 9〉 韓國經濟의 DPG분석결과(1980~90)

(α=2.805)

28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 費	投 資	在 庫	輸 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1 農 業	-20.5	-23.2	-0.1	1.9	-0.4	5.3	-2.0	-1.9
2 林 業	-2.5	-1.0	-0.4	0.0	-0.1	0.1	-0.9	-0.2
3 水産業	-4.6	-3.1	0.0	0.2	-1.6	0.0	0.1	-0.3
4 鑛 業	-3.0	-0.4	0.4	-0.2	-0.1	0.0	-1.8	-1.0
5 食料品	-21.6	-26.0	0.1	0.0	0.0	0.0	4.6	-0.3
6 飲 料	-2.1	-3.4	0.0	0.1	0.1	-0.2	1.6	-0.3
7 담 배	-2.4	-2.1	0.0	-0.4	0.0	-0.2	0.3	0.0
8 纖 維	-9.7	-3.4	0.0	-1.6	-4.5	-0.2	1.9	-2.0
9 織 物	-1.6	-0.6	0.0	-0.5	-1.0	0.2	0.4	-0.1
10 衣 服	-6.6	-2.6	0.0	-0.4	-3.3	-0.3	0.0	0.0
11 革製品	2.5	-1.2	0.0	-0.4	2.6	-0.2	1.0	0.7
12 木製品	-0.5	0.5	0.8	0.7	-1.2	0.0	-0.7	-0.6
13 製紙·紙製品	1.5	-0.8	0.2	-0.7	0.1	0.0	2.4	0.3
14 化學製品	9.9	-1.2	0.8	1.2	1.3	-0.7	7.8	0.7
15 石油化學製品	-8.2	-2.1	0.6	-0.5	1.0	-0.4	-4.9	-1.8
16 窯業土石	2.2	0.0	1.1	-0.8	-0.7	0.1	2.3	0.1
17 鐵 鋼	4.7	1.6	2.1	-1.8	-1.4	2.5	-2.7	4.4
18 非鐵金屬	1.5	0.3	0.3	0.1	1.0	0.1	-0.3	-0.1
19 金屬製品	5.9	0.3	1.5	-0.1	0.4	0.3	2.8	0.8
20 一般機械	18.2	0.9	2.1	-0.6	4.1	4.6	3.1	3.9
21 電氣機械	19.8	4.8	0.2	0.3	10.4	1.9	0.4	1.9
22 運送機械	19.9	7.0	3.9	-0.4	1.3	2.7	3.0	2.5
23 其他製造業	2.8	0.2	0.2	-0.2	0.3	-0.6	2.3	0.7
24 建設業	9.3	-1.2	8.6	0.0	0.1	0.0	1.7	0.1
25 電氣水道가스	1.7	-0.1	0.3	-0.2	0.0	0.2	1.2	0.2
26 運輸通信	-5.0	-4.9	0.7	-0.2	-1.6	-0.1	-0.1	1.3
27 都小賣業	-1.0	-2.4	1.1	-0.4	0.7	0.6	-1.7	1.1
28 其他서비스業	-10.6	-33.4	2.3	-0.3	1.2	-0.4	18.1	1.9
統合7部門	正規化 偏差	要 因 別						
		消 費	投 資	在 庫	輸 出	最終輸入	技術變化	中間輸入
農林水産業(1-3)	-27.6	-27.3	-0.5	2.0	-2.1	5.3	-2.8	-2.3
鑛業(4)	-3.0	-0.4	0.4	-0.2	-0.1	0.0	-1.8	-1.0
輕工業(5-13,16,23)	-35.5	-39.5	2.5	-4.2	-7.7	-1.3	16.1	-1.4
化學工業(14-15)	1.7	-3.4	1.5	0.7	2.2	-1.1	2.9	-1.1
重工業(17-22)	70.1	15.0	10.0	-2.6	15.9	12.1	6.3	13.4
建設·公共(24-25)	11.0	-1.3	8.9	-0.2	0.1	0.2	2.9	0.3
서비스業(26-28)	-16.6	-40.7	4.2	-1.0	0.3	0.1	16.2	4.3
合 計	0.0	-97.5	26.9	-5.5	8.7	15.4	39.8	12.2

주 : () 안의 숫자는 28부문의 산업을 의미함.

면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위 3低現象과 선진국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대되고, 서울올림픽의 개최 등으로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비교적 균형된 경제성장을 보였다.

〈표 9〉의 DPG분석결과를 보면 총생산은 10년간 약 3배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장에는 중공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있어서 산업생산구조의 특징적인 변화로는 우선 대부분의 경공업이 負의 DPG를 보여 주도산업에서 완전히 탈락했고, 운송기계, 전기기계 및 정밀기계 등 기계산업이 1970년대에 이어 대폭적인 생산비중의 확대를 보여 주도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굳혔으며, 또한 건설업의 생산비중이 재차 큰 확대를 보였다는 것이다. 건설업의 확대는 대부분 투자요인(9.3% 중 8.6% 해당)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건설투자의 확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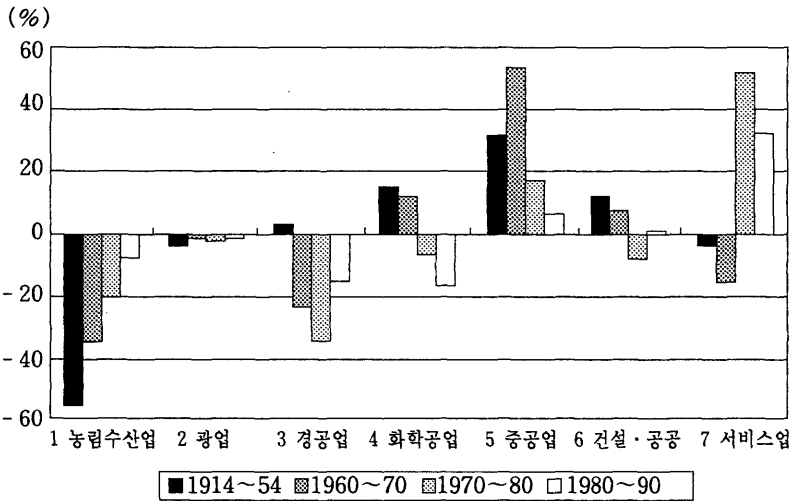
한편 요인별에 있어서는 기술변화, 투자, 수입대체 및 수출 등 대부분의 요인들이 생산확대에 正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처음으로 기술변화가 생산확대에 최대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경제의 성숙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관찰결과로 볼 수 있다.

3. 兩國의 特徵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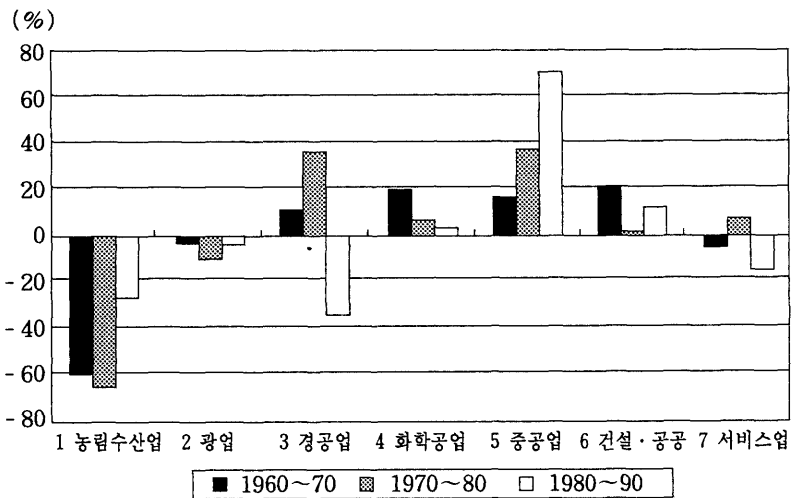
본절에서는 DPG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양국의 특징을 産業生産構造와 主導産業의 變化 및 이를 초래한 要因들의 變化를 통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양국 경제에 있어서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를 보면, [그림 1]과 [그림 2]에도 나타나 있듯이 양국 모두 농림수산업

[그림 1] 日本經濟의 DPG추이(통합7부문)



[그림 2] 韓國經濟의 DPG추이(통합7부문)



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1970년을 경계로 주도 산업이 중공업에서 다시 서비스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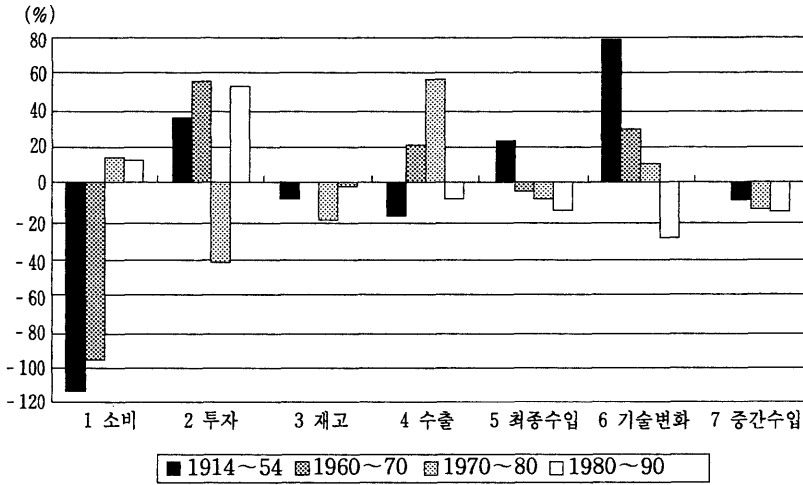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변화가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1차산업 중심에서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소위 Pretty의 法則이나, 工業構造는 경공업에 비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Chenery(1960), Maizels(1970) 등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은 1980년대 말까지도 서비스산업은 뚜렷한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경제발전에 있어서 앞선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경제의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주도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1970년대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1980년대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의 확대가 현저하게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경제의 서비스화」의 진전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예상되며, 이것은 1차적으로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要因들의 변화에 주목해보면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국의 성장패턴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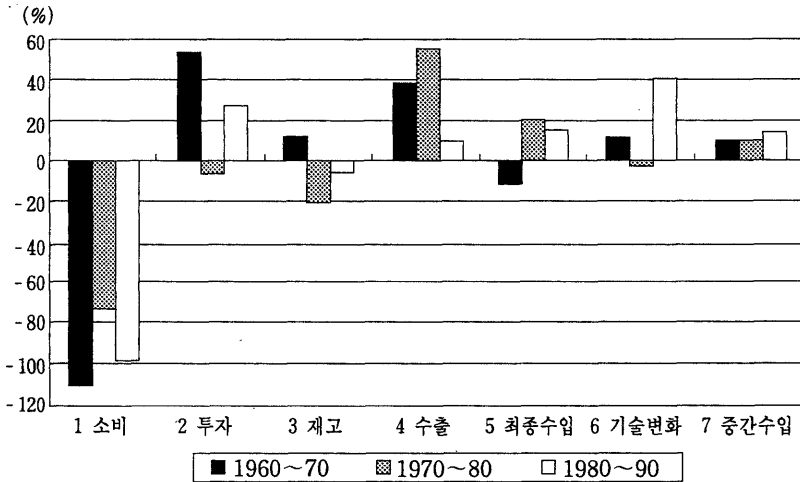
우선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다. 즉 1914~54년 기간에는 투자확대, 기술변화 및 수입대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특히 투자와 기술변화는 중화학공업의 확대가 두드러졌던 1960년대까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에는 수출과 소비, 그리고 1980년대에는 투자와 소비가 각각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일본경제는 수출보다는 내수위주로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는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수출과 투자요인의 건인

[그림 3] 日本經濟의 요인별 DPG추이



[그림 4] 韓國經濟의 요인별 DPG추이



력이 상당히 컸으며, 특히 수출요인은 3기간동안 지속적으로 正의 효과만을 나타냈다. 일본경제도 1970년대에는 수출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한국경제에 있어서 수출이 담당했던 역할과 비교해볼 때는 그 크기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경우 발전 초기부터 수출확대를 정책목표로 삼고, 자금과 자원

을 수출이 가능한 재화의 생산에 중점적으로 분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한국경제는 하나의 발전패턴을 제시한 것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즉, 우선 수출확대로 경제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난 다음, 내부순환에 충실을 기하는 패턴이다. Chenery(1960)는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은 수요요인보다는 오히려 수입대체라는 공급측면의 요인이 크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V. 要約 및 結論

본고는 각 산업이 비례적으로 성장한 경우와 실제의 성장간의 偏差로써 생산의 산업별 비중에 있어서의 變化程度를 측정하는 DPG 분석방법을 1914~90년간의 일본경제와 1960~90년간의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생산구조변화의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일본경제에서는 1914~54년간 농림수산업의 생산이 축소된 반면 대부분의 제조업분야가 확대되었고, 여기에는 투자와 기술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주도산업에서 탈락한 대신에 중화학공업의 생산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성장에는 투자와 기술변화 및 수출의 역할이 중요했다. 특히 투자와 수출은 철강, 기계산업 등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화학공업이 축소되고 중공업의 성장속도가 낮아진 대신에 그동안 침체되었던 서비스산업이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철강, 기계산

업의 확대에 집중적으로 작용한 수출이 생산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또한 최종수요인 소비요인과 중간수요인 투입계수의 변화도 서비스산업의 생산확대에 正의 효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는 중공업에서도 전기기계산업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또한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1960년대는 경제발전의 초기단계로 농림수산업과 광업이 축소되고 제조업분야는 대체로 생산이 확대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시설확충으로 인한 건설업의 생산확대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는 투자수요와 수출의 확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70년대에는 일부 경공업의 생산확대도 보이지만 중화학공업화의 성장이 본격화되었다. 여기에는 수출증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기기계분야에서는 수입대체의 기여도 매우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있어서 산업구조의 특징은 경공업의 생산비중이 축소되고 화학공업이 주도산업에서 탈락한 반면,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의 성장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에는 기술변화와 투자요인이 매우 큰 역할을 했고, 수입대체와 수출도 일부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수출보다는 內需 위주로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경제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요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수출요인은 3기간동안 지속적으로 正의 효과만을 나타내 경제성장의 牽引車役割을 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경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에 있어서 산업성장과 생산구조변화

에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國內需要의 規模와 한국의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앞으로도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향후 한국의 산업생산구조는 「경제의 서비스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며, 생산자서비스부문의 생산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한층 더 진전될 「경제의 서비스화」, 특히 소비자서비스부문의 확대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 경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양국의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분석범위에 있어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즉 一國의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변화와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본 연구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구조변화에 입각한 공급측면에서의 요인분석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수요측면에서도 경제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附加價值基準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의 합인 總產出基準에 입각한 분석에 그쳤다는 점이다.

▷ 參考文獻 ◁

- 金光錫, 『韓國工業化과 턴과 그 要因』, 韓國開發研究院, 1980.
- 金光錫·洪性德, 「長期的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12卷 第1號, 1990.
- 金昌南, 『日本の 産業과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政策研究 92-29,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南相祐, 「開發戰略과 成長」, 車東世(編), 『韓國經濟 半世紀』, 韓國開發研究院, 1995, pp. 9~16.
- 朴垞卿·金政鎬, 『構造變化와 雇傭問題』, 研究報告書 92-05, 韓國開發研究院, 1992.
- 閔庚輝, 『韓國産業의 聯關構造 變化와 對日 比較—重化學工業 育成期를 中心으로—』, 研究叢書 93-08, 産業研究院, 1993.
- 安忠榮·金周勳, 「對外指向 貿易政策과 産業發展」, 車東世·金光錫(編), 『韓國經濟 半世紀—歷史的 評價와 21世紀 비전』, 韓國開發研究院, 1995, pp. 313~369.
- 趙 淳, 「韓國經濟의 發展戰略」, 『韓國의 經濟發展—評價와 展望—』,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創立30周年紀念심포지엄, 1991.
- 韓國産業銀行, 『2000年代 韓國産業의 構造變化와 長期發展戰略』, 1995.
- 韓國銀行, 『國民計定』, 各號.
- , 『物價年報』, 1984.
- , 『1960年 産業聯關表』, 1963.

- , 『1970年 産業聯關表』, 1973.
- , 『80-85-90 接續不變産業聯關表 作成概要』, 1994.
- 青木浩治・稻田義久, 「韓國工業化の要因パターンの日韓比較」, 『アジア經濟』, 第21卷 第5號, 1980, pp. 27~46.
- 陣光輝・藤川清史, 「臺灣經濟の比例成長からの乖離(DPG)分析」, 『世界經濟評論』, 第31卷 第8號, 1987, pp. 53~65.
- , 「DPG(比例成長からの乖離)分析にまつわる若干の問題と日本・臺灣の産業構造變化パターン」, 『國際大學 *Annual Review*』, Vol. 6, 1989, pp. 125~144.
- 韓福相, 「韓國の經濟成長と産業構造變化の要因分析: 1973-83年」, 『アジア經濟』, 第30卷 第7號, 1989, pp. 25~38.
- 香西 泰, 『円の戦後史』, NHK出版, 1995.
- 行政管理廳, 『昭和 35-40-45 接續産業聯關表』, 1975.
- 總務廳, 『昭和 45-50-55 接續産業聯關表』, 1985.
- , 『昭和 55-60-平成2 接續産業聯關表』, 1995.
- 日本經濟新聞社, 『日本經濟辭典』, 1996.
- 森口親司, 「經濟政策論争の50年-(2)安定成長期・成熟期」, 『經濟セミナ』, 通卷487號, 日本評論社, 1995. 8, pp. 10~11.
- 中村隆英, 『日本經濟—その成長と構造』, 東京大學出版會, 1982.
- 渡部經彦・駿河輝和, 「工業化要因分析と戦後日本の經驗」, 『大阪大學經濟學』, 第26卷 第3-4號, 1977, pp. 154~166.
- 渡部利夫, 『成長のアジア停滯アジア』, 東洋新報社, 1985.
- Chenery, Hollis B.,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0, 1960, pp. 624~654.
- Chenery, Hollis B., S. Shishido, and T. Watanabe, "The Pattern of Japanese Growth, 1914-1954," *Econometrica*,

Vol. 30, 1962, pp. 98~139.

Clark, Colin, *The Condition of Economic Progress*, 3rd ed., London: Macmillan, 1957.

Hauthakker, H. 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 Commemorating the Centenary of Engel's Law," *Econometrica*, Vol. 25, 1957, pp. 532~551.

Kuznets, S.,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Maizels, A., *Growth and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Rao, C. R., *Linear Statistical Inference and Its Application*, New York: Wiley, 1973.

Rostow, W. 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附錄〉 産業分類表

1. 日本의 産業分類

28部門 분석기간 이용표	1960~70년	1970~80년	1980~90년
	昭和35-40-45년 접속산업연관표 59부문번호	昭和45-50-55년 접속산업연관표 71부문번호	昭和55-60-平成2년 접속산업연관표 91부문번호
1 農林水産業	1-6	1-5	1-5
2 石油天然가스	10	8	9
3 其他鑛業	7-9, 11	6, 7, 9	6-8
4 食料品	12-17	10-16	10-13
5 纖維製品	18-20	17-20	14, 15
6 木·紙製品	22-24	22-25	16-19
7 化學製品	28-30	29-34	21-26
8 石油化學製品	31, 32	35-36	27, 28
9 窯業土石	33	37	32-35
10 鐵 鋼	34, 35	38-40	36-38
11 非鐵金屬	36	41, 42	39, 40
12 金屬製品	37	43	41, 42
13 一般機械	38	44	43-46
14 電氣機械	39	45, 46	47-50
15 運送機械	40	47, 48	51-53
16 精密機械	41	49	54
17 其他製造業	21, 25-27, 42	21, 26-28, 50	20, 29-31, 55
18 建設業	43, 44	51-53	56-58
19 電氣가스業	45, 46	54, 55	59, 60
20 水道業	47	56	61, 62
21 都小賣業	48	57	63
22 金融保險	49	58	64
23 不動産業	50, 60	59, 60	65, 66
24 運輸業	51	61	67-73
25 通信業	52	63	74, 75
26 教育研究醫療	54	65-68	77-81
27 서비스業	55	69	82-89
28 其 他	53, 57, 66, 67	64, 69-72	76, 90, 91

2. 韓國의 産業分類

분석기간 이용표 28部門	1960년 1960산업연관표 43부문번호	1970년 1970년산업연관표 56부문번호	1980~90년 1980-85-90접속불변산 업연관표 75부문번호
1 農 業	1, 2	1-4	1, 2
2 林 業	3	5	4
3 水産業	4	6	5
4 鑛 業	5, 6	7-9	6-9
5 食料品	7	10-13	10-15
6 飲 料	8	14	16
7 담 배	9	15	17
8 織 維	10	16	18, 19
9 織 物	11	17	20
10 衣 服	12	18	21
11 革製品	16	19	22
12 木製品	13	20, 21	23, 24
13 製紙·紙製品	14, 15	22	25
14 化學製品	17, 21	24-28, 31	27-33, 36, 37
15 石油化學製品	22	29, 30	34, 35
16 窯業土石	23, 24	32	38, 39, 40
17 鐵 鋼	25, 26	33, 34	41, 42
18 非鐵金屬	27	35	43
19 金屬製品	28	36	44
20 一般機械	29	37	45-47
21 電氣機械	30	38	48-51
22 運送機械	31	39	53, 54
23 其他製造業	32	23, 40, 41	26, 52, 55
24 建設業	34, 35	42, 43	59, 60
25 電氣水道가스	36	44-46	56-58
26 運輸通信	39	48, 49	63, 64
27 都小賣業	40	50	61
28 其他서비스業	33, 37, 38, 41-43	46, 47, 51-56	3, 62, 65-75

論 評

閔 庚 輝

(産業研究院)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다른 여러 접근법에서 기대할 수 없는 독특한 視角과 視野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업연관데이터의 수집과 정리 및 가공에 매우(국제비교의 경우에는 더욱) 크고 힘든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분석법에 비하여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런 만큼 이 논문이 산업연관분석법을 이용한 것은 우선 매우 반가운 일이며, 특히 수십년에 걸치는 장기간을 몇 개의 소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소기간에 대하여 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는데, 불변가격으로의 換價가 필요로 하는 엄청난 노력 하나만으로도 이 勞作이 가지는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이 채택한 DPG방법을 이용한 유사한 대표적 기존연구로서 金光錫·洪性德(1990)을 들 수 있다.¹⁾ 이 논문은 기존연구에 비하여 분석대상기간을 1990년까지 5년 연장하였고, 日本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국내최종수요를 소비, 투자 및 재고로 細分함으로써 생산구조변화에 대한 기여요인을 좀더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기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金光錫·洪性德은 DPG 외에 다른 분석방법도 併用하여, 서로 다른 접근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비교 제시함으로써 이 논문보다 더 풍부한 분석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이 채택한 분석대상기간의 細分이

1) 저자들이 기존연구의 하나로 든 本 評者의 拙著(1993)는 DPG접근법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기존연구와 1 대 1로 상응하지 않고 또 산업분류도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직접적 비교는 곤란하지만, 생산성장을 주도한 산업군과 기여요인의 摘出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결과를 기존연구의 그것과 비교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면 이 논문의 더 큰 기여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日本에 대한 분석이 이 논문에서 차지하는 많은 분량에 비추어 보면 韓·日 비교의 내용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기 어렵고 日本에 대한 분석결과가 한국의 그것과 단순하게 並置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우선, 양국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그림 1]~[그림 4]를 해석하는 데에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두 나라의 산업발전단계가 시간적으로 현격하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를 동시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듯한데, 이럴 경우 구조변화의 주도적 요인과 주도적 產業群에 대한 비교분석적 해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기조차 하다고 할 것이다. 간단한 한 예로, 경공업은 한국의 경우(중화학공업과 더불어) 1960~80년 기간에 일정한 +기여의 산업이었음에 비해 日本에서는 같은 기간중 현저한 -기여의 산업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표면상의 차이가 보여주는 것만큼 양국간에 발전패턴상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는, 중화학공업의 기여도가 동 기간에 비슷한 모양을 보인다는 사실이 반드시 양국의 경험의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경제발전의 수준이 시간적으로 크게 상이한 국가간의 비교에서는 발전상의 격차를 반영하는 일정한 시차를 둔 비교가 보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日本の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가 1970년대부터 주도적 구조변화 요인으로 대두된 데 비해 한국은 1990년까지 그러한 현상이 아직 없으나 향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논문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 이는 저자들도 언급하였듯이 오래 전부터 인식된 산업구

조 변화의 일반적 패턴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생산자서비스산업과 소비자서비스산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 자체는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지만 이 구분이 저자들이 채택한 두 나라의 산업분류에 제대로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논문에서 두 나라의 산업분류가 비단 서비스부문만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많은 산업부문에 걸쳐서도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에 있는데, 산업연관표의 작성방법이 국가간에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상이한 산업분류하에서의 분석결과를 국가간에 비교하고 있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여 용납되기 어렵다.

특히 韓·日간에는 산업분류를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本 評者의 경험이나 다른 연구들에 비추어볼 때 이 논문에서 사용한 산업분류의 양국간 차이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양국 비교를 개별산업 수준이 아니고 통합산업군 수준에서 한다고 해서 문제가 간단해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비례적 성장에서의 편차의 합계가 핵심분석개념인 이 논문에서 산업분류의 수준은 DPG의 크기와 부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접근법이라면 몰라도 DPG 방법에 있어서는 산업분류의 완전한 일치야말로 국가간 비교를 정당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다.

산업분류의 수준과 국가간 일치 여부의 문제는 '기술변화'요인의 계산에서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DPG 분석에서 기술변화는 투입계수의 변화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투입계수 변화의 크기뿐만 아니라 부호까지도 산업분류의 수준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산업 또는 산업군에 대하여 기술변화요인의 DPG의 크기와 부호가 두 나라 사이에 같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산업분류가 상이하다면 각국의 기술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추

론도 안전하지 못하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향후 한국경제의 생산구조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지적되는, 고도성장의 지속에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의를 달기 어렵다. 그러나 그 논거는 단순히 한국과 日本의 과거의 경험의 線型的 延長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 ‘현재 국내수요의 규모’라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요인도 언급되는데, 만일 이것이 내수시장의 협소를 뜻하는 것이라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異見이 있을 것이다. 논문이 제시하는 둘째의 시사점—경제의 서비스화—은 선진국의 산업발전의 장기적 경험과 일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이미 경험중에 있는 현상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의 구체적 내용과 그런 대책이 필요한 이유를 오직 독자의 상상에만 맡기고 있는 것은 아쉽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하여,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면 중간투입을 포함하는 총산출(粗生産)을 기준으로 생산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산업구조가 아니고 생산구조를 분석할 경우에는 內生部門인 산업간 중간거래를 매개로 하는 산업간 연관관계의 변화와 그 畧意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적절하다. 중간투입부문을 통한 산업간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내용의 중요한 일부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힘들게 산업연관데이터를 이용하는 所以가 불분명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중간생산물의 의미 있는 역할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DPG 접근법은 그 유용성에 한계를 지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가가치 기준이 아닌 총산출기준의 구조변화에 관심을 두는

까닭은 바로 중간투입물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고리로 하는 산업간의 연관관계의 변화와 이것이 함축하는 기술변화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PG 분석법은 산업간 연관관계의 변화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생산이 不比例적으로 변화한 산업과 그 기여요인의 抽出에 중점을 두며, 그와 같은 변화가 초래되는 과정에서 산업간 연관관계 및 그것의 변화가 담당한 역할은 모형의 밖에 두어지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단조로워지기 쉽다.

禹 天 植

(本院 研究委員)

이 논문은 1914~90년간의 일본경제와 1960~90년간의 한국경제에 대한 DPG분석을 통해, 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의 요인과 유형을 시대별로 구명하고 양국의 성장패턴상의 전반적인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DPG분석방법은, 총생산합수를 구성하는 공급측면요인들의 절대적인 성장기여도를 추정하고자 하는 성장요인분석(growth accounting) 접근방법과는 달리 산업별, 수요요인별 상대적 성장기여도를 경제전체의 평균 성장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성장에 따른 순수한 산업구조 및 수요구조의 변화를 밝혀내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성장은 戰後 일본의 성장유형과 전략을 모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경제는 일본의 발전 경로를 15~20년 정도 後行하며 따르는 식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통념이 있다. 이러한 통념에 대해 이 논문의 연구는, 투입산출자료와 DPG분석에 근거한 통일된 분석체계하에 장기간에 걸친 한일 양국의 성장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상의 실제 유사성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한국경제가 어떠한 성장요인에 의해 어떠한 구조변화과정을 거치며 발전해나갈 것인가를 추론하는 데도 유용한, 엄밀한 실증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높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의 많은 부분(일본과 한국 모두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제조업 등 2차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성장의 주도산업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점차 이행되었다는 등의)은 기존의 가설과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성격의 것으로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장의 수요요인별 분석에 있어 우리의 경우 일본보다 수출의 기여도가 훨씬 더 현저하였다는 사실도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겠으나, 하나의 통일된 분석체계하에 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수출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분석, 대비함으로써 한국이 일본과 달리 수출주도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패턴을 구현하여왔음을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일본의 성장과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심거리가 된다면, 이는 본격적인 성숙기 경제로의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요인과 구조변화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의 연구결과 중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내수요인, 특히 소비지출의 역할 변화와 경제서비스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60년대 이후 일본경제성장에 있어 소비지출의 DPG값은 70년대를 기점으로 負에서 正의 값으로 전환되어 온 반면(60년대, -94.8; 70년대, +28.2; 80년대, +12.1), 우리의 경우 소비지출의 DPG값은 60년대 이래 줄곧 큰 負의 값을 보이고 있다(60년대, -110.8; 70년대, -60.9; 80년대에는 -97.5). 소비지출의 결정요인과 장기적인 성장에의 기여 여부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최소한 소비지출과 경제성

장간의 상관관계가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추세적으로 반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 경제의 향후 발전경로에 있어 소비지출의 역할이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몇년간 우리 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한 소비지출의 증가가 과연 일본의 70년대와 같은 소비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경제의 성숙과 해외투자의 증가 등으로 수출의 신장세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가 새로운 안정적 성장기반으로 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소비지출의 증가를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보고 우리 경제의 성장요인을 계속해서 수출에서만 찾고자 하는 관습적 시각에 대해,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본격적인 성숙기 발전단계로 접어든 우리 경제에 있어 소비지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이 필요함을 밝혀주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 논문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결과는 ‘경제서비스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일본경제의 경우 서비스산업(廣義의)의 DPG값은 1960년대 -14.2, 1970년대 +52.2, 1980년대 +32의 수준으로 변해왔으며 이는 서비스산업이 1970년대 이후 일본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일본경제성장 유형에 비추어 앞으로 한국경제도 본격적인 경제서비스화의 과정을 밟을 것이 예견된다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다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은 경제서비스화의 성격이다. 일본의 경우, 이 논문에서 산출된 서비스산업의 세목별 DPG값을 검토해보면 경제서비스화의 성격이 1970년대와 1980년대간에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0년대에는 부동산(14.4), 운수(20.6) 등의 부문이 서비스업 성장의 주축을 이룬 데 비해, 1980년대 들어서는 1970년대 동안 負의 DPG(-2.4)를 기록한 협의의 서비스(개인서비스 등)가 DPG +39.9로 금융보험(+8)과 함께 전체서비스산업의 팽창을 주도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이 지적한 대로 일반적으로 경제서비스화의 원인으로는 크게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이행과 제조업내부 서비스업무의 外注化에 따른 전문생산자 서비스의 증가와, 전반적인 소득증가에 따른 레저·관광 등 소비자서비스 수요의 증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물론 생산자서비스부문과 소비자서비스부문의 구분에는 많은 개념적 문제가 따르며, 일본경제의 서비스화 과정에 대한 이 논문의 소비와 투자의 요인별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생산자·소비자 兩서비스부문의 실제 확대과정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중요성의 측면에서 1970년대 일본경제의 서비스화는 대체로 생산자서비스부문의 팽창에 의해 야기된 반면, 1980년대 서비스화는 주로 소비자서비스부문의 확대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경제는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경제서비스화의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때 이른 경제서비스화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가경쟁력 기반의 조기잠식을 의미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최근의 OECD국가에서는 정보통신혁명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 전문생산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턴의 경제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우리의 경제서비스화 현상에 있어서 얼마만큼이 일본이 1970년대에 경험한 바와 같은 고전적인 성격의 것이 될 것이며, 최근의 새로운 경제기술환경에 의해 야기된 새로운 성격의 것이 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설혹 경제서비스화의 새로운 범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 우리의 경제서비스화가 일본의 1970년대와 같이 이미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바, 향후 우리 경제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역할을 구명하기 위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에 있어 유의·참조할만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A Quarterly Journal Published in Korean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Vol. 19, No. 2

1997. II

Theoretical Foundations of Recent
Central-Bank Reforms in Advanced
Countries *Yoon-ha Yoo*
Comment : *Sung-in Jun / Seong-hyeon Whang*

The Influence of the World Market Size
on the Pace of Industrialization *Jung-ho Yoo*
Comment : *Jong-wha Lee / Chin-hee Hahn*

Optimal Siz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Dong-seok Kim*
Comment : *Jong-ho Hong / Jay-hyung Kim*

An Analysis of Industrial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Korean and
Japanese Economies *Jin-myon Lee*
Kiyoshi Fujikawa
Comment : *Kyoung-hwie Mihn / Cheon-sik Woo*

For subscription to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please contac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O. Box 113, Chongnyang, Seoul, Korea
Fax : (961) 5092. Tel : (958) 4114

■ 論評 및 書評 寄稿案内 ■

本誌 編輯委員會는 本誌에 발표된 論文과 本院에서 발간된 單行本 및 각종 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과 書評의 寄稿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또는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앞으로의 研究課題와 政策方案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趣旨에서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장 안팎(PC로 작성한 원고는 겹장에 200자 원고지 기준 총분량을 표시할 것)
2. 원고내용 : 論評은 해당 논문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내용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論文이 발표된 후 3개월 이내로, 書評은 해당 보고서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앞으로의 研究課題 提示를 내용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된 후 6개월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 출 처 : 우편 또는 인편으로 『KDI 政策研究』 編輯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本院이 정한 審査節次를 거쳐 신게 되며, 채택된 원고는 稿料를 드립니다.

研究報告書 案內

第71-01卷	企業整理에 대한 意見	金滿堤
第71-02卷	金利引下の 可能性	金滿堤
第71-03卷	農業開發戰略과 米穀需給政策의 評價	金滿堤
第72-01卷	總資源豫算을 위한 成長戰略(1972~73年)	KDI
第72-02卷	새 政策의 選擇을 위한 決斷	金滿堤
第72-03卷	1973年度 豫算規模의 計測	朴宗淇 金完淳
第72-04卷	開館紀念 심포지움 發表論文集	KDI
第72-05卷	韓國經濟 安定化를 위한 提言	下村治
第72-06卷	成長과 安定政策에 관한 研究	KDI
第72-07卷	長短期計劃을 위한 諸模型(잡정)	金榮奉 外
第73-01卷	主要原資材에 대한 國際市場 分析和 價格展望	KDI
第73-02卷	社會保障年金制度를 위한 方案	朴宗淇 金大泳
第73-03卷	韓國經濟의 產業聯關分析	宋丙洛
第73-04卷	主要穀物의 國際需給事情과 價格動向	KDI
第73-05卷	우리나라 教育投資의 經濟的 價値分析	南祐鉉 鄭暢泳
第73-06卷	우리나라 交通計劃과 政策	宋丙洛
第74-01卷	政府 主要農產物 備蓄事業效果分析	文八龍 柳炳瑞
第74-02卷	輸出 100億弗 目標와 歐洲市場展望	洪元卓 外
第74-03卷	重化學工業推進黨를 위한 國家持株會社의 活用方案	司空壹 外
第74-04卷	公企業 任員의 社會的 背景	俞 焄
第75-01卷	豫算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迪教
第75-02卷	서울市內 生産 및 所得推計(1973)	金大泳
第75-03卷	우리나라 商品輸出의 長期展望(1973~81)	宋熙季 外

第75-04卷	우리나라 教育의 需要形態 및 經濟成長 寄與分析	金榮奉
第75-05卷	우리나라 人口의 推計(1960~2040)	金大泳
第75-06卷	鐵鋼景氣의 測定分析과 豫測模型	金胤亨
第75-07卷	鐵鋼産業의 景氣와 長期需要展望	宋熙季
第75-08卷	서울市內 生産 및 市民分配所得(1974)	金大泳 洪性德
第75-09卷	韓國製造業의 賃金隔差構造	金光錫 外
第75-10卷	韓國 首都圈의 空間經濟分析	宋丙洛
第75-11卷	韓國 에너지産業의 需要分析과 豫測	金胤亨 金炳穆
第75-12卷	우리나라 貿易構造의 推定(1977~86)	洪元卓
第75-13卷	內國稅의 稅目別 稅收豫測方法	朴宗淇
第75-14卷	纖維工業의 成長過程과 生産構造	金榮奉
第76-01卷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1965~70)	金大泳 李孝求
第76-02卷	長期雇傭 및 技術人力計劃	金秀坤
第76-03卷	서울市內 生産 및 市民分配所得(1975)	金大泳 洪性德
第77-01卷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分析	姜奉淳 文八龍
第77-02卷	IBRD借款 中規模型 水利事業 評價分析	文八龍 外
第78-01卷	1968~73年 韓國鐵工業 産業資本스투推計	朱鶴中
第78-02卷	合板工業의 成長	宋熙季 孫炳岩
第79-01卷	우리나라 製造業의 生産性分析(1966~75)	金迪教 孫讚鉉
第79-02卷	輸送部門의 投資事業審査指針	鄭丙壽
第79-03卷	韓國海外移民研究	洪思媛 金思憲
第79-04卷	石油化學工業의 長期展望	金浩卓
第79-05卷	韓國의 育兒費와 出産力	具成烈
第79-06卷	韓國機械工業의 構造와 展望	金迪教 編
第79-07卷	韓國의 칼라TV工業	金榮奉
第79-08卷	韓國經濟의 短期豫測模型	李天杓

第79-09卷	韓國의 輸入構造 및 輸入政策	徐錫泰
第80-01卷	水資源·工業團地造成部門의 投資事業審査分析	林栽煥
第80-02卷	인플레이와 企業成長能力	張榮光
第80-03卷	農業機械化의 政策課題	文八龍
第80-04卷	產業別 投入係數의 變化와 推定	金圭洙
第80-05卷	韓國의 自動車工業	李徹熙
第80-06卷	農業機械化의 投資效果分析	林栽煥
第81-01卷	社會保障制度改善을 위한 研究報告書	朴宗淇 外
第81-02卷	韓國金屬工業의 展望과 政策課題	南宗鉉 編
第81-03卷	自動車工業의 發展方向과 政策	金榮奉
第81-04卷	福祉社會의 人力政策과 職業安定	金秀坤 外
第81-05卷	固體廢棄物 管理現況과 改善方案	鄭文植
第81-06卷	5次計劃을 위한 都市化問題의 研究	宋丙洛
第81-07卷	韓國製造業의 產業集中分析	李奎億 徐鎮教
第81-08卷	農業信用事業의 經濟性分析	林栽煥
第81-09卷	韓國 資本主義經濟體制 發展을 위한 研究	黃秉泰
第81-10卷	韓國의 產業誘因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南宗鉉
第81-11卷	對外去來自由化와 韓國經濟	金重雄
第81-12卷	景氣綜合指數作成에 관한 研究報告書	徐相穆 編
第81-13卷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徐相穆 外
第82-01卷	糧政轉換을 위한 食糧安保備蓄制度	柳炳瑞
第82-02卷	名目 및 實效保護率 構造의 長期的 變化	金光錫 洪性德
第82-03卷	韓國製造業의 產業別 生産構造	金栽元
第82-04卷	勞使關係 事例研究	金秀坤 外
第82-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2年度)	朴宗淇 編 李奎億
第82-06卷	1960~77年 韓國產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外

第82-07卷	農外所得増大를 위한 綜合對策	柳炳瑞 外
第82-08卷	主要農業政策 改善方案	柳炳瑞 外
第82-09卷	産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楊秀吉
■■■■■		
第83-01卷	醫療保險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清 外
第83-02卷	世界經濟環境變化와 當面課題	金重雄
第83-03卷	勞使關係 政策課題와 方向	金秀坤 編
第83-04卷	80年代 勞使關係發展을 위한 懇談會 報告書	KDI
第83-05卷	勞使協議制 研究	朴世逸 外
第83-06卷	都給組織의 現況 및 都給去來의 增進方案	金栽元
第83-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3年度)	崔洸 編
第83-08卷	短期金融市場의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李德勳
第83-09卷	經濟安定化政策과 企業經營의 改善	洪炳裕
第83-10卷	都市行政의 發展的 機能과 改善方向	黃仁政
■■■■■		
第84-01卷	韓國稅制의 主要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洸 編
第84-02卷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閔載成 外
第84-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4年度)	金重雄 編 崔洸
第84-04卷	金融國際化의 當面課題와 政策方向	金重雄 外
第84-05卷	인플레이期待와 經濟安定	李啓植
第84-06卷	市場과 市場構造	李奎億 外
■■■■■		
第85-01卷	産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宋大熙 柳炳瑞
第85-02卷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外
第85-03卷	乘法 季節ARIMA模型의 構造識別方法	呂運邦 孫英淑
第85-04卷	海外先物市場의 活用方案	李炘 外
第85-05卷	減價償却制度和 資本所得課稅	郭泰元
第85-06卷	第2金融圈의 發展과 業務領域調整	李德勳
第85-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5年度)	李啓植 編 郭泰元

第85-08卷	特許制度의 經濟的 效果分析	鄭 鎮勝
第86-01卷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郭泰元 編 李啓植
第86-02卷	金融產業發展에 관한 研究, 1985~2000	朴英哲 外
第86-03卷	私學運營의 課題와 改善方案	朴烜求 外
第86-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6年度)	郭泰元 編 李啓植
第86-05卷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閔載成 外
第86-06卷	Social Development in Action	黃仁政
第86-07卷	Financ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金重雄 編
第86-08卷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李奎億 編
第86-09卷	證券市場의 發達과 機關投資家의 役割	李德勳 編 張忠植
第87-01卷	商品去來所의 設立에 관한 研究	李 炆 外
第87-02卷	公企業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	宋大熙 外
第87-03卷	우리나라 金融政策運營現況과 改善方案	鄭健溶
第87-04卷	Macro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5卷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7年度)	延河清 編 李啓植
第87-07卷	에너지部門의 政策課題와 改善方案	李 炆
第87-08卷	住宅金融의 現況과 發展方向	姜文秀 金重雄
第87-09卷	地方工業의 特性和 育成政策	金鍾基 外
第88-01卷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研究	姜信逸
第88-02卷	社會保障制度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清 外
第88-03卷	金融先物과 傭市場의 活用方案	李 炆 外
第88-04卷	社會福祉傳達體系의 改善과 專門人力活用方案	徐相穆 外
第88-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8年度)	郭泰元 編 李啓植
第88-06卷	日本經濟社會의 進化和 韓日貿易	李奎億 外

第88-07卷	輸入自由化의 經濟的 效果와 產業調整政策	金光錫
第89-01卷	리스產業의 發展方案	李 煥 外
第89-02卷	研究開發과 市場構造 및 生産性	金迪教 趙炳澤
第89-03卷	產業技術開發支援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鄭俊石
第89-04卷	國家報勳報償制度의 改編方案	閔載成 金龍夏
第89-05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	李奎億 編
第89-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9年度)	沈相達 編 李啓植
第89-07卷	金融環境變化와 綜合金融會社의 位相	南相祐 外
第89-08卷	經濟의 國際化와 中小企業의 產業調整	朴俊卿
第90-01卷	稅收推計 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盧基星 外
第90-02卷	韓國의 適正賃金	張鉉俊 金在源
第90-03卷	地方公企業의 課題와 發展方向	宋大熙
第90-04卷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李在亨
第90-05卷	醫療保險制度의 改善을 위한 政策方案	權純源 外
第90-06卷	證券產業發展을 위한 研究	李永琪 外
第90-07卷	地域發展과 地方財政	李啓植 外
第90-08卷	韓國의 退職金制度와 企業年金制度 導入方案	閔載成 外
第90-09卷	中產層實態分析과 政策課題	延河清 外
第90-10卷	中小企業의 產業調整과 中小企業支援施策의 改善方向	姜文秀 外
第90-11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II)	李奎億 編
第90-12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0年度)	宋大熙 編 權純源
第90-13卷	經濟開放과 巨視經濟運用	朴元巖 外
第90-14卷	國民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 및 方向	南相祐 外
第91-01卷	開放化와 下都給體制의 改編	金周勳 趙觀行
第91-02卷	法經濟研究(I)	李奎億 外

第91-03卷	金利自由化的 課題와 政策方向	南相祐 外
第91-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1年度)	李啓植 編 盧基星
第91-05卷	國民年金基金의 福祉部門 活用方案	閔載成 外
第91-06卷	產業化過程과 經濟制度의 對應	李奎億 編
第92-01卷	우루과이라운드의 規律分野協商과 產業·貿易政策의 改善方向	南宗鉉 泰 張義
第92-02卷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中央·地方財政機能의 再定立	宋大熙 編 盧基星
第92-03卷	廣告의 產業組織과 規制	李奎億 劉承旻
第92-04卷	舊東獨의 私有化方案 및 失業對策	高日東 外
第92-05卷	構造變化와 雇傭問題	朴俊卿 金政鎬
第92-06卷	製造業의 總要素生產性動向과 그 決定要因	金光錫 外
第92-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2年度)	宋大熙 編 柳一鎬
第92-08卷	韓國經濟의 產業貿易模型	李元暎
第93-01卷	國內銀行의 經營效率性 比較分析	孫承泰
第93-02卷	產業保護와 誘因體系의 歪曲	俞正鎬 外
第93-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3年度)	宋大熙 編 文亨杓
第93-04卷	韓國의 老齡化 推移와 老人福祉對策	閔載成 外
第93-05卷	低所得層의 生活安定과 自立對策	權純源 外
第94-01卷	地域金融의 活性化와 새마을금고의 發展	李德勳 外
第94-02卷	產災保險 財政運營方式 開發에 관한 研究	閔載成 外
第94-03卷	美日構造調整協議의 展開와 競爭政策	崔鍾元
第94-04卷	國際化時代의 韓國經濟運營	左承喜
第94-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4年度)	盧基星 編 柳一鎬
第94-06卷	外國人直接投資와 投資政策	李弘求
第94-07卷	우리나라 自動車產業의 當面課題와 產業組織政策	劉承旻 外
第94-08卷	競爭政策의 國際比較：美國·日本·獨逸	申光滉

第95-01卷	金融自律化에 따른 生命保險產業의 對應方案	羅東敏
第95-02卷	韓·臺·日的 輸入依存構造比較	俞正鎬
第95-03卷	法經濟研究(II)	李奎億 外
第95-04卷	國際化時代의 金融制度	崔範樹 李炯周
第95-05卷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和 對北投資 推進方案	全洪澤 外
第95-06卷	調達市場의 效率化·開放化 方案	南逸聰 外
第95-07卷	國民年金制度의 財政健實化를 위한 構造改善方案	文亨杓
第95-08卷	韓國教育財政의 現況과 改革方向	尹建永
第96-01卷	OECD加入과 資本自由化	朴元巖
第96-02卷	金融의 效率性提高와 金融規制 緩和	姜文秀 外
第96-03卷	金融自由化와 金融監督	姜文秀
第96-04卷	製造業 總要素生產性的 長期的 變化	洪性德 金政鎬
第96-05卷	北韓의 經濟特區	朴貞東
第96-06卷	金融의 汎世界化와 證券產業의 構造改編	李德勳 崔範樹
第96-07卷	南北韓 經濟統合時의 經濟·社會 安定化 對策	朴進
第96-08卷	中小企業의 構造調整과 知識集約化	金周勳
第96-09卷	韓國 物價變動構造의 分析和 政策對應	朴佑奎 外
第96-10卷	雇傭對策과 人的資源開發	李周浩
第96-11卷	地域利己主義의 經濟的 理解와 效率的 葛藤調整方案	金在亨
第96-12卷	經濟世界化時代의 巨視經濟運營	左承喜 編
第96-13卷	與信專門金融產業의 特性和 發展方案	李德勳 外
第96-14卷	中小·벤처企業의 發展과 場外市場의 活性化	崔範樹 李基煥
第96-15卷	中央·地方政府間 關係 및 財源調整	李啓植 外
第96-16卷	경제체제 전환기의 노동정책	조동호
第96-17卷	地方化時代의 政策課題와 制度改善方向	盧基星 編
第97-01卷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制度의 改善方向	盧基星 鄭源浩

新刊案内

創業支援金融制度의 發展方案

半洋裝 / A5新 / 256쪽 / 定價 9,000 원 / 李 德 勳 外

經濟世界化時代의 巨視經濟運營

半洋裝 / A5新 / 284쪽 / 定價 11,000 원 / 左 承 喜 編

中小·벤처企業의 發展과 場外市場의 活性化

半洋裝 / A5新 / 324쪽 / 定價 12,000 원 / 崔範樹·李基煥 著

與信專門金融產業의 特性和 發展方案

半洋裝 / A5新 / 192쪽 / 定價 7,000 원 / 李 德 勳 外

경제체제 전환기의 노동정책

반양장 / A5 신 / 230쪽 / 정가 8,000 원 / 조 동 호 저

地域利己主義의 經濟的 理解와 效率的 葛藤調整方案

半洋裝 / A5新 / 168쪽 / 定價 8,000 원 / 金 在 亨 著

1996년 韓國經濟의 主要懸案과 政策對應

半洋裝 / B5 / 200 쪽 / 定價 6,000 원 / 金 在 亨 著

地方化 時代의 政策課題와 制度改善 方向

半洋裝 / A5新 / 226쪽 / 定價 8,000 원 / 盧 基 星 編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制度의 改善 方向

半洋裝 / A5新 / 148쪽 / 定價 6,000 원 / 盧基星·鄭源浩 著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半洋裝 / A5新 / 580쪽 / 定價 20,000 원 / 전홍택·이영선 편

열린 市場經濟로 가기 위한 國家課題

半洋裝 / A5新 / 300쪽 / 定價 6,000 원 / 재정경제원·한국개발연구원

KDI 圖書會員制 案內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院 研究院이 발간하는 모든 刊行物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會 費 : 100,000원

■ 加入方法 :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회비를 납입하거나,
- 가까운 우체국의 本院 우편대체계좌
(계좌번호 : 010983-31-0514919)에 납입하면 됨.

■ 問議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 발간자료상담실(Tel. 958/4326~8)

KDI 圖書 販賣處

- | | |
|----------------------|---------------|
| • 서울 : 교보문고(정부간행물코너) | Tel. 397-3628 |
| 종로서적(3층 사회관) | Tel. 733-2331 |
| 영풍문고(정부간행물코너) | Tel. 399-5632 |
| • 부산 : 영광도서(정부간행물코너) | Tel. 816-9500 |
| • 대구 : 학원서림(1층 2매장) | Tel. 425-0050 |